

HANSAE YES24
HOLDINGS

HANSAE
fashion worldwide

C&T
COLOR & TOUCH

HANSAE MK

HANSAE
DREAMS

YES24.COM

동아출판

YES24 LIVE HALL

YNK MEDIA

iSTYLE24

HAN SAE IN

AUTUMN

ISSN 2636-0551

VOL. 021

HANSAE
QUARTERLY
MAGAZINE



고진영 세계랭킹 1위 등극 / 데뷔 2년차에 LPGA 올해의 선수상 수상 확정

2019 롤렉스 LPGA 어워드 올해의 선수상 확정 / LPGA투어 통산 6승, KLPGA투어 통산 10승 / 2018 롤렉스 LPGA 어워드 올해의 신인상 / LPGA투어 67년만의 데뷔전 우승

임희정 2019시즌 KLPGA 루키 유일인 3승 기록 중	장하나 LPGA투어 통산 5승, KLPGA투어 통산 11승	이승연 2019 KLPGA 투어 넥센-세인트나인 마스터즈 우승	허다빈 2019 KLPGA KB금융 스타챔피언십 9위	최혜용 KLPGA투어 통산 2승	제니퍼송 2018 LPGA투어 ANA Inspiration 준우승	김도연 2019 KLPGA 기자동차 한국여자오픈 19위	성지은 KLPGA 2019 한세-휘닉스CC 드림투어 14차전 준우승	사라제인스미스 2018 LPGA투어 U.S. Women's Open 5위
---	--	--	---	-----------------------------	--	--	---	--



PGA TOUR & LPGA 골프웨어 후원선수

시즌 **11** 승 달성



프로가 선택한 골프웨어
“좋은 옷이 최고의 성적을 만든다!”

1,100명에게 톡크게 쏜다!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추첨

- 1등 : 골프바 (100만원 상당 / 1명)
 - 2등 : PGA TOUR 캐디백 (11명)
 - 3등 : 양말2+모자1 세트 (랜덤 중첨 / 1,088명)
- 이벤트 기간 : ~11/24(일)
당첨자 발표 : 12/2(월) / 매장 방문 수령



* 상기 이벤트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1등 당첨시 배송비(배송 22% 본인부담)
* 1등 당첨시 상품 수령 기념사진 촬영 및 기사 배포 예정

PGA TOUR & LPGA 복합매장 대리점 개설 문의 02.2142.7744

롯데백화점 분점/잠실점/노원점/미아점/김포점/중동점/대구상인점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광명점/고양점/김해점 현대백화점 미아점/부산점 현대프리미엄 아울렛 송도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정부점/충청점/센텀점/신세계스타일마켓 대전점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파주점 AK플라자 원주점 세이백화점 대전점 모다아울렛 곤지암점/
대전점/대구점/울산점/경주점/순천점 마리오아울렛 구로점 대리점 도곡점/문정점/아이즈빌점/일산북이점/김포장기점/안양평촌점/수원영통점/안산한대점/시화점/남양주삼패점/
포천송우점/죽전점/동해점/천안쌍용점/청주미평점/청주올림픽/진주정촌점/칠곡세베밸리점/대구서성점/김해진영점/포항점/부산녹산점/해운대점/광주상무지점/광주세정점/
군산점/제주노형점



PGA TOUR 온라인몰

WWW.LPGAGOLFWEAR.COM @LPGAGOLFWEAR



LPGA 골프웨어 온라인몰





Levi's®



PLAYKIZ PRO



BUCKAROO

WWW.BUCKAROO.CO.KR |  buckaroojean  buckaroo_official



#TBJ #TBJ라이관린 #TBJ유선호 #TBJ오늘의하늘 #TBJ뽕글이점퍼



TBJnearby

WWW.TBJ.NET |   @tbj_nearby





 **nba**kids

WWW.NBAKIDS.CO.KR | @nbakids_kor



 **NBA**

**REVERSIBLE
FLEECE**

WWW.NBASTYLE.CO.KR | nbastyle @nbastyle_kor



ANDEW

CONTENTS

HANSAE
QUARTERLY
MAGAZINE
VOL.21 AUTUMN

COVER STORY



결실의 계절 가을은 어느 계절보다 풍요롭지만 또 어느 계절보다 겸손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이 시간, 가을이 배부르면서도 쓸쓸한 이유인가 봅니다. 한 해의 노고를 인정받는 시간 "한세인들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메시지를 전하는 듯합니다.

발행일: 2019년 11월 22일

창간일: 2014년 7월

등록번호: 영등포, 바00169

발행인: 김동녕

편집기획: 배연호

인쇄: 동아출판

편집디자인: (주)대통기획

한세예스24홀딩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6층

T. 02)3779-0800



#특별한날엔앤듀

WWW.ANDEW.CO.KR | @andew.official



AUTUMN THEME

WE ARE COMPANIONS

아홉수 직원들의 방담 안 좋은 일에 이유를 댄다의	14	아트스튜디오 전시 플레이키즈프로 유니크한 가을 키즈 스타일 제안	52
직장인 일주일 출근룩 제안 아! 너두 패셔니스타 될 수 있어	18	BOOK 핫플레이스 충청권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예스24 청주NC점	54
별별업무탐방 "성인이 입어도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유아동복을 만들고 싶어요"	24	新감성으로古서적읽기 예스24 홍대점, 홍대 거리의 젊은 감성 담아 새 단장	56
한세실업 행사 혁신 기업가와 함께 한 스페셜 토크 진행 외	28	한글사랑 이벤트 TBJ, "나라사랑 가득" 한글날 기념 이벤트 개최 창립 20주년 맞은 예스24 / 한글날 맞아 예스24 서체 무료 배포	58
동호회를 기다 한세실업 밴드동호회 G24	30	TV 속 예스24 / 동아출판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이벤트 실시 tvN 금요드라마 '쌈니다 천리마마트' 도서 협찬	60
해외법인 소개 HCM 물류팀 INTRODUCTION	34	챔피언십 후원 버커루,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후원	62
必 환경 프로젝트 한세엠케이 앤듀 X 세계자연기금(WWF) 에코 콜라보 "LOVE EARTH" 출시	38	배우 유연석 팬사인회 PGA TOUR & LPGA 골프웨어	64
글로벌 인재육성 한세실업, 세계 1위 섬유 단과대와 산학협력	39	국제문화교류전 한세예스24문화재단,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 전시 개최	66
문화나눔에 앞장서는 한세실업 한세실업, 6년 연속 '문화햇살콘서트' 후원으로 문화나눔에 기여 외	40	나만 아는 맛집 여의도 즉석 떡볶이계의 오아시스, 써니 즉석떡볶이	68
골프웨어의 힘 "좋은 옷이 최고의 성적을 만든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저력 주목	41	간식시간 표고버섯 탕수육	70
현지 근무자 위한 복지 프로젝트 한세실업, 나카라과 현지 직원들 위한 체력단련실 완공	42	책임아웃 동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72
베트남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세인 한세실업, 해외법인 현지직원 초청	44	문화다방 쌀쌀한 날씨 따뜻한 공간에서 머리도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74
신입사원 정착원 전환식 한세실업 신입사원 26차 정착원 전환식	45	동아출판 공간을 소개합니다 어려워진 수능 국어, 중학교부터 '빠른시작'이 답! 동아출판 <중학 국어 뼈작 시리즈> 신간 출시 외	76
한세실업 이슈 한세실업 김익환 대표 과테말라 차기 부통령 · 사회개발부 장관과 회동	46	PPT 작성 꿀팁 이것만 기억하면 PPT에 생명을, 자신감 뽐냄!	78
컬리수 고객이벤트 컬리수 친구들 "프렌치 식사 예절, 엄마랑 배웠어요"	47	음악가자 회고 "사랑이지,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80
축구대잔치 제 13회 컬리수 축구대잔치 in 대구 성료	48	우리말 바로 쓰기 '달이다'와 '다리다' 올바른 표현은?	81
서울패션위크 서울패션위크(SFW) 돋보였던 브랜드 스토리	50		

안 좋은 일에 이유를 댄다!

인터뷰어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고길동**
들리에 나오는 희동이 아빠, 가장의 어려움을 점점 느끼게 되어 연민의 정이 생겼어. 물론 나와 닮은 점도 있지.
- 갓마더**
이 닉네임은 동기들이 영화 대부 '갓파더'를 패러디 해서 지어준 별명이야. 아마도 언니, 누나로서 든든한 엄마같은 이미지 때문인가봐. 이제는 이름보다 더 편한 별명이 되었어.
- 그러려니**
요즘 나에게 스트레스 주는 일들을 그러려니 넘기려고 노력중이야. 이렇게 적으면 아무도 나인줄 모르지 않을까 싶어 정했어.
- 지니**
내가 지은 가명이고, 내 이름과 비슷하고 부르기 쉬워서 자주 쓰고 있어. 또 알려진 등장인물 지니를 좋아하기도 하고.
- 구구**
이제 아홉수도 얼마 남지 않았고, 아홉수 인터뷰이니 만큼 '구구'가 좋을 거 같아.
- 패송**
닉네임인 패송은 매사에 열정이 넘친다는 의미와 내 이름에서 따온 별명이 합쳐진 것이지.

← 🔍 ☰

“사람마다 아홉수가 사납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가 박경리는 <토지>에서 이런 표현을 썼다.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홉수'라는 말은 9, 19, 29처럼 숫자 아홉이 들어간 수를 말한다. 특히 나이를 지칭할 때 자주 쓰인다. 아홉수에 접어들면 결혼, 이사 등 대사(大事)를 꺼리는 게 좋다고 흔히 옛 어른들이 말해왔다. 아홉수는 예년에 비해 특별한 한해를 보내고 있을 때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자축할 때 쓰이기도 한다. 예년보다 조금 더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면 "역시 아홉수라서 그런가" 생각해보고, 예상보다 수월하거나 성공적인 한 해를 지내고 있다면 "아홉수가 나만은 비껴가는 것 같다"고 자축해볼 수 있다. 한세에서 근무하는 아홉수 사원들에게 2019년은 어떤 한 해였을까. 익명으로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인터뷰어

올해 '운수가 안 좋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일?

- 고길동**
없는데!!
- 갓마더**
없는데!!
- 그러려니**
없는데!!
- 지니**
없는데!!
- 구구**
없는데!!
- 패송**
난 얼마 전 해외여행을 갔다가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 처음으로 '아 내가 운이 좋지 않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 아홉수를 맞이한 친구 4명이 떠난 여행이었는데 4개의 가방 중 2개가 도난 당해서 눈물날 뻔. 소매치기 말고도 다사다난했던 여행이라 아홉수 때의 여행은 피해야 했나 하는 생각도 했지.



← 🔍 ☰

인터뷰어

2019년은 어떤 한 해였는지 아홉글자로 표현해본다면, 그리고 이유는?

- 고길동**
점점 스팀이 많아진다. 해야되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줄어들지 않네ㅠ
- 갓마더**
뒤늦은 29.9춘기
한세에 입사 전 해외에서 약 3년간 근무했어. 외국에 있을 땐 '나이먹음'에 무지했는데, 입사 후 주변 동기들과 함께하다 보니 같은 20대일지라도 1-2년 나이 차이가 보드 크게 다가오는 걸 종종 느낄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마치 사춘기보다 더한 29.9춘기를 겪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다가올 30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아쉬운 도전보다는 '현명한 판단'을 위해 저울질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일까?
- 그러려니**
그럭저럭 잘 넘어갔다!
아홉수에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2019년이 시작할 때 조금 신경쓰이긴 했어. 그런데 막상 10월의 중반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 딱히 아홉수라 힘들었다 싶은 일 없이 잘 넘어간 것 같아.
- 지니**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 올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좋은 일, 안 좋은 일을 떠나서 그 안에서 항상 배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 구구**
아근아근아근의연속
업무에 속도가 안나고 계속해서 일이 생기자보니 아근의 연속이네. 그래도 올해 초보다 아근이 많이 줄었고 간혹 제 시간에 퇴근해서 개인 발전을 위해서도 투자하기 시작했어.
- 패송**
보내고 싶지 않은 한 해!
아무래도 20대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보내고 싶지가 않네... 그 어느 해보다도 시간이 빨리 흘렀던 해였기에 아쉬움이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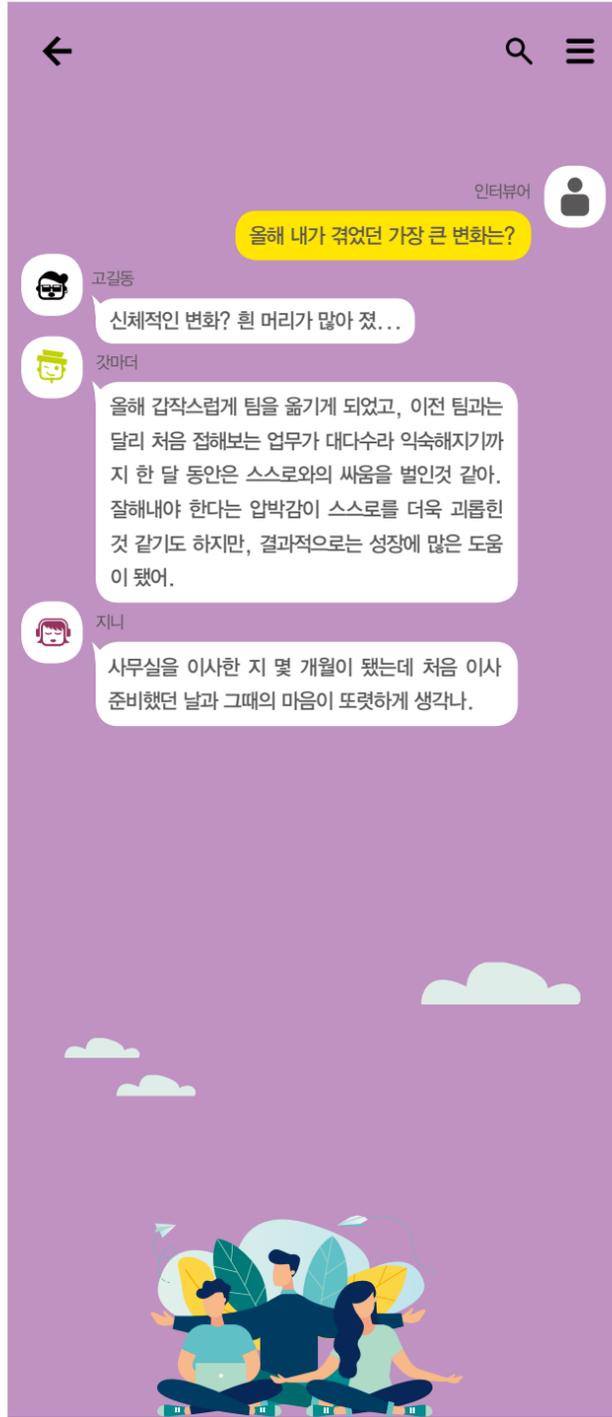
← 🔍 ☰

인터뷰어

지치고 힘들 때 나만의 극복법이 있다면?

- 고길동**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생각해. 자기 최면을 걸며 참다보면 정말 나아지는 것 같아.
- 갓마더**
정말 우울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애써 상황을 극복하려 발버둥 치기보다 오히려 바닥까지 내려갔다 서서히 올라오면서 극복하는 게 좋아. 과정은 인고의 시간이지만, 그만큼 차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지.
- 그러려니**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해. 속세의 힘든 것들은 생각할 겨를조차 없게. 그러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돌아. 집에 가는 길에는 아주 큰 소리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듣고 도착하면 바로 잠에 들게 돼.
- 지니**
무조건 좋게 생각해. 어떤 일이던 다 뜻과 배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모든 건 나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어? 그게 제일 무섭기 때문에 항상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
- 구구**
지치고 힘들 때 모아놓은 신발들을 보면서 힐링하곤 해. 이렇게 더 사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면서 의지를 다지지.
- 패송**
인상깊게 봤던 영화를 다시 보거나 좋아하는 야구 경기를 보면서 기분전환을 하는 게 최고.





← 🔍 ☰

인터뷰어

올해 내가 겪었던 가장 큰 변화는?

고길동

신체적인 변화? 흰 머리가 많아 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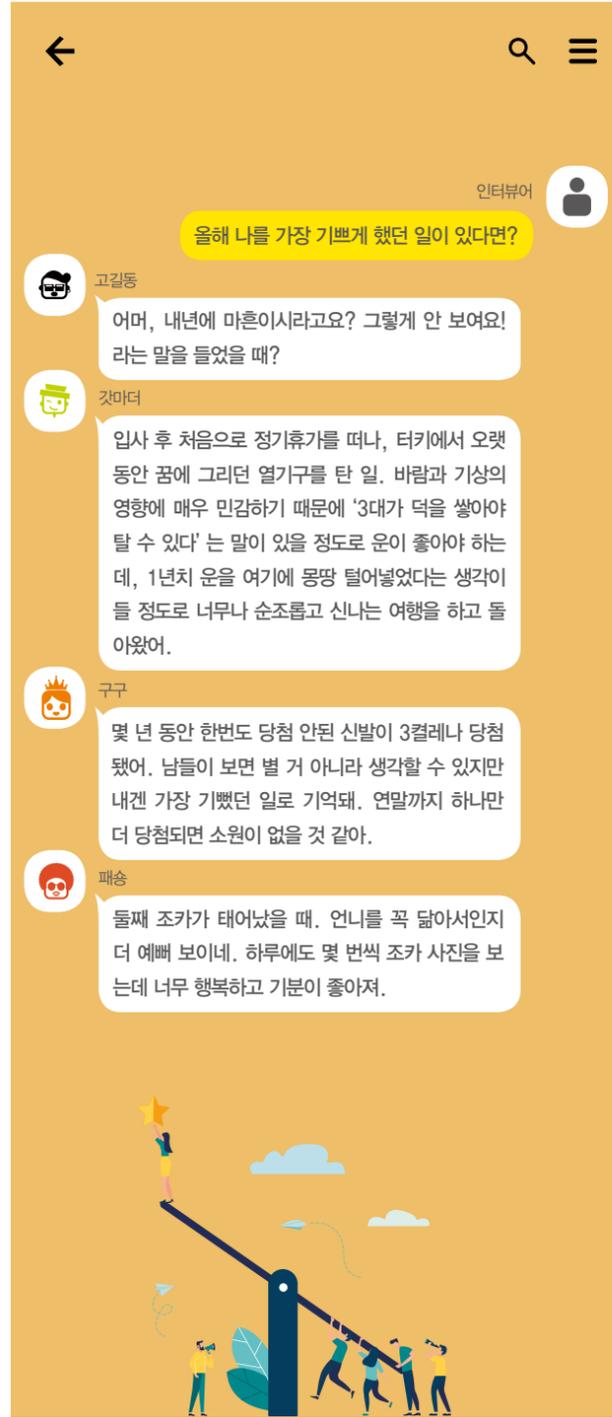
갯마더

올해 갑작스럽게 팀을 옮기게 되었고, 이전 팀과는 달리 처음 접해보는 업무가 대다수라 익숙해지기까지 한 달 동안은 스스로와의 싸움을 벌인것 같아. 잘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스스로를 더욱 괴롭힌 것 같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어.

지니

사무실을 이사한 지 몇 개월이 됐는데 처음 이사 준비했던 날과 그때의 마음이 또렷하게 생각나.

+ 😊 #



← 🔍 ☰

인터뷰어

올해 나를 가장 기쁘게 했던 일이 있다면?

고길동

어머, 내년에 마흔이시라고요? 그렇게 안 보여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갯마더

입사 후 처음으로 정기휴가를 떠나, 터키에서 오랫동안 꿈에 그리던 열기구를 탄 일. 바람과 기상의 영향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3대가 덕을 쌓아야 탈 수 있다' 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운이 좋아야 하는데, 1년치 운을 여기에 몽땅 털어넣었다는 생각들을 정도로 너무나 순조롭고 신나는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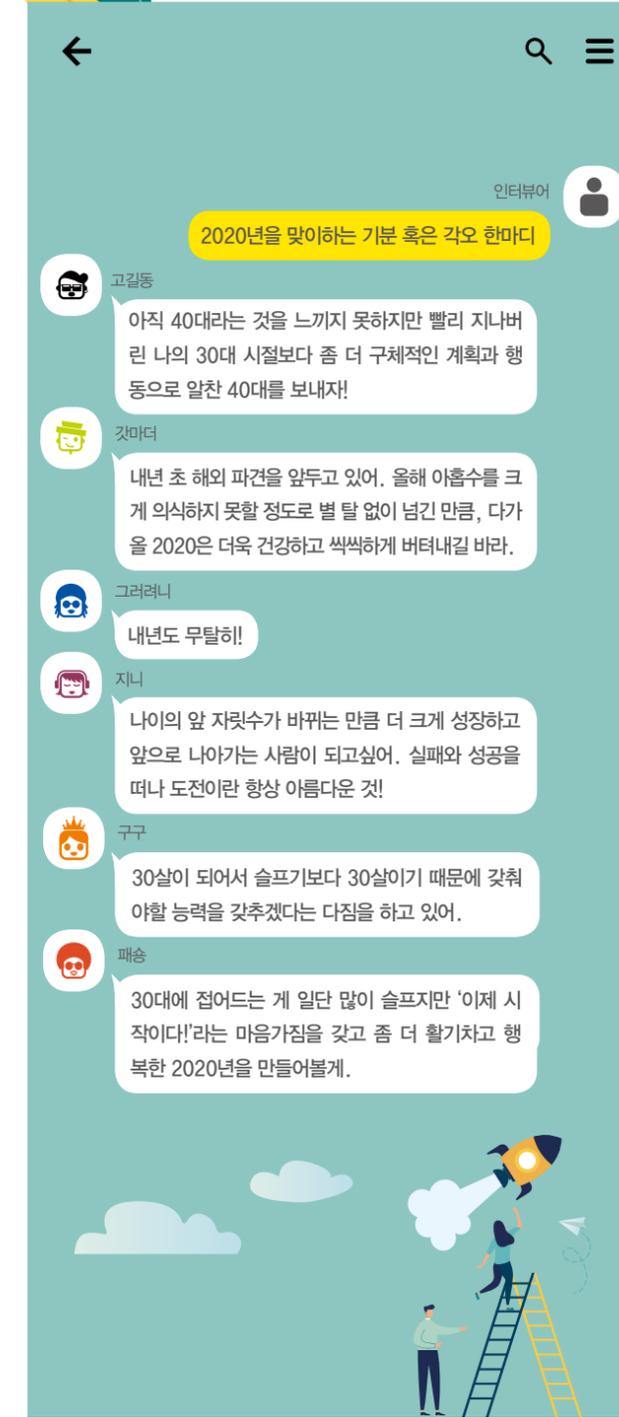
구구

몇 년 동안 한번도 당첨 안된 신발이 3결레나 당첨 됐어. 남들이 보면 별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내겐 가장 기뻐했던 일로 기억돼. 연말까지 하나만 더 당첨되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

패송

둘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언니를 꼭 닮아서인지 더 예뻐 보이네. 하루에도 몇 번씩 조카 사진을 보는데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아져.

+ 😊 #



← 🔍 ☰

인터뷰어

2020년을 맞이하는 기분 혹은 각오 한마디

고길동

아직 40대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빨리 지나버린 나의 30대 시절보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행동으로 알찬 40대를 보내자!

갯마더

내년 초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있어. 올해 아홉수를 크게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별 탈 없이 넘긴 만큼, 다가올 2020은 더욱 건강하고 씩씩하게 버텨내길 바라.

그러려니

내년도 무탈하!

지니

나이의 앞 자릿수가 바뀌는 만큼 더 크게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싶어. 실패와 성공을 떠나 도전이란 항상 아름다운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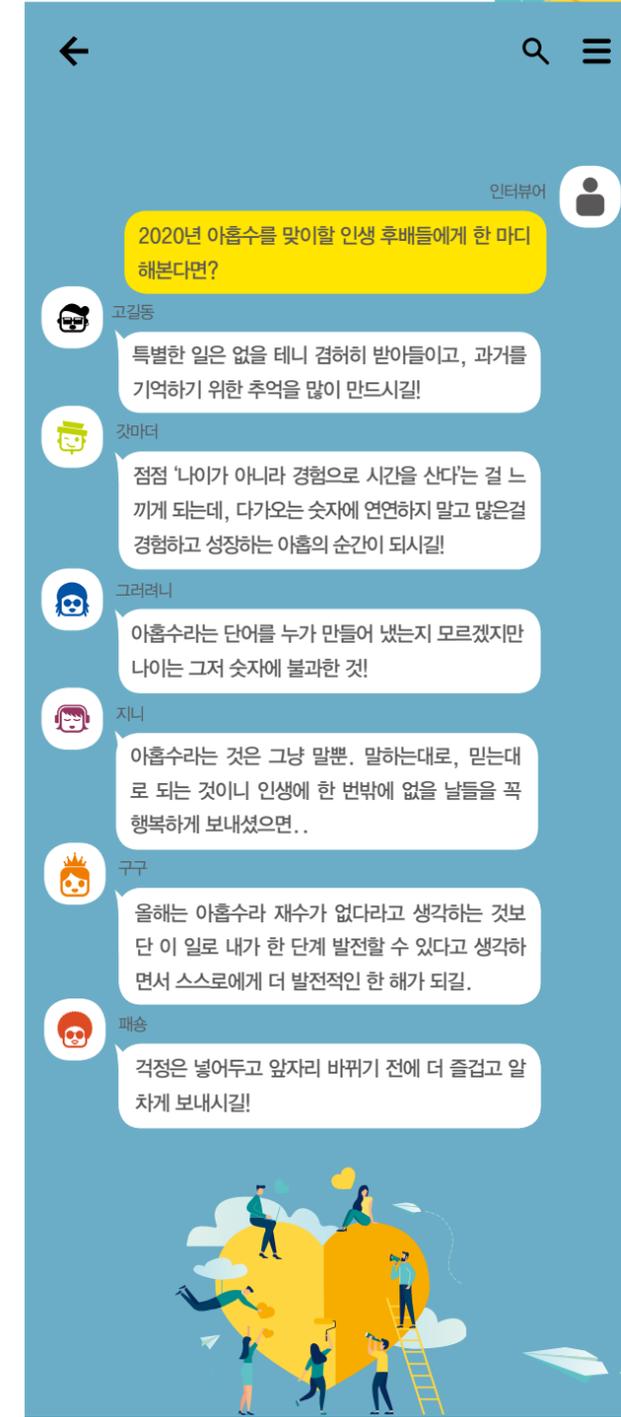
구구

30살이 되어서 슬프기보다 30살이기 때문에 갖춰야 할 능력을 갖추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패송

30대에 접어드는 게 일단 많이 슬프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좀 더 활기차고 행복한 2020년을 만들어볼게.

+ 😊 #



← 🔍 ☰

인터뷰어

2020년 아홉수를 맞이할 인생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본다면?

고길동

특별한 일은 없을 테니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거를 기억하기 위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갯마더

점점 '나이가 아니라 경험으로 시간을 산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다가오는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많은걸 경험하고 성장하는 아홉의 순간이 되시길!

그러려니

아홉수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어 냈는지 모르겠지만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한 것!

지니

아홉수라는 것은 그냥 말뿐. 말하는대로, 믿는대로 되는 것이니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날들을 꼭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구구

올해는 아홉수라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단 이 일로 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더 발전적인 한 해가 되길.

패송

걱정은 넣어두고 앞자리 바뀌기 전에 더 즐겁고 알차게 보내시길!

+ 😊 #

야! 너두 패셔니스타 될 수 있어

Week looks



매일 업무로 신경 쓸 일이 많은 당신에게 아침마다 또 한 가지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이 있다. 바로 '출근복장' "오늘 뭐 입지?"라며 옷장 앞에서 고민하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이들을 위해 일주일 간의 출근룩을 추천한다. 우리 회사 대표 패셔니스타로 인정 받고 싶다면, 집중해서 살펴보자.



월요일 출근룩:

ANDEW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의가 많은 날, 포멀하고 단정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Monday look 01

아우터
O194CT1000
블랙
219,000

Monday look 01

아우터
O194CT010P
카키
279,000

Monday look 02

이너
O194KT050P
그레이
79,000

Monday look 02

이너
O194CT100P
그레이
59,000

Monday look 03

팬츠
O194PT160P
블랙
69,000

Monday look 03

팬츠
O194PT520P
베이지
69,000

A N D E W

화요일 출근룩:

정신없는 월요일을 보내고 남은 4일을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룩!

Tuesday look 01
아우터
T194JP600P
O.WH
89,900

Tuesday look 02
상의
T194TS720P
WH
39,900

Tuesday look 03
하의
T194PT850P
CA
39,900

Tuesday look 01
아우터
T194JP110P
BE
99,900

Tuesday look 02
상의
T194SH300P
NA
39,900

Tuesday look 03
하의
T194PT350P
KH
39,900

TBJ nearby

수요일 출근룩:

워라벨 수요일, 최고의 스윙을 하러 가기 위한 기능성 스타일링!

Wednesday look 01
아우터
L194DW710P
WHT
449,000

Wednesday look 02
상의
L193KT611P
WHT
219,000

Wednesday look 03
하의
L194PT808P
BLK
219,000

Wednesday look 03
상의
L193TL104P
WHITE
159,000

Wednesday look 01
아우터
L194DW309P
BLK
499,000

Wednesday look 02
상의
L193KT215P
M/GREY
339,000

Wednesday look 04
하의
L193PT405P
C/GREY
189,000



목요일 출근룩:

남다른 컬러로 포인트를 준 저세상 힙 스타일링!

Thursday look 01

아우터
N194VT003P
129,000

Thursday look 01

아우터
N194JP110P
169,000

Thursday look 02

상의
N193TS010P
69,000

Thursday look 02

상의
N193TS010P
69,000

Thursday look 03

하의
N194TP010P
69,000

Thursday look 03

하의
N194TP010P
69,000



금요일 출근룩:

불금을 위해, 평일 중 가장 신경 쓴 트렌디한 스타일링!

Friday look 01

아우터
B194LI010P
BLACK
359,000

Friday look 01

아우터
B194LI010P
Light Brown
359,000

Friday look 02

바지
B195DP517M
DIN
179,000

Friday look 02

바지
B194DP189M
BLACK
179,000

BUCKAROO

“성인이 입어도 촌스럽지 않은 세련된 유아동복을 만들고 싶어요.”

moimoin

한세드림 모이몰른 디자인실 박은영 디자이너



“성인복의 미니 사이즈 버전 같다.” “내가 입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세련되고 차분한 디자인과 색감.” “보들 보들 해 아이가 편해하고, 향균 향취 소재여서 안심이 된다.” 지난 2014년 한세드림이 유니크 감성 브랜드 ‘모이몰른’을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런칭하자, 엄마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북유럽 스타일을 콘셉트로 한 모노톤의 색감과 드레시한 디자인이 사이즈만 키우면 성인이 입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련됐다는 평가가 SNS를 타고 확산됐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유아동복’ 모이몰른 런칭에 참여한 박은영 디자이너가 추구했던 목표였다.

모이몰른의 런칭부터 현재까지를 담당하고있는 박은영 디자이너는 올해 봄 런칭한 토들러 라인을 담당하게 되어 더욱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그동안 디자인한 제품 가운데 가장 잘 팔린 옷이 뭐냐고 묻자 “잘 팔린 옷이 너무 많아 하나를 꼽기 어렵다”고 대답하며 호탕하게 웃을 정도로 디자인한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큰 박은영 디자이너를 서울 상암동 한세드림 사무실에서 만났다.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세드림 모이몰른 디자이너 박은영 과장입니다.

2.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가요?

19년 봄 시즌부터 미니 토들러 라인인 mM을 런칭하여 토들러팀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3. 아동복 디자인에 처음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 디자인을 전공할 때는 여성복 디자이너가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을 준비하던 13년 전에는 55 사이즈 피팅이 가능한 지원자만 디자이너로 취업이 가능해서 많은 고민 끝에 아동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동복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아쉬웠는데 지금 뒤돌아 생각해보면 아동복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아동복 디자인은 기성복 디자인과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동복은 일반 기성 성인복과 다른 점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째는 안전 측면입니다. 어린 아기들을 위한 옷이기 때문에 국내 KC인증이나 중국의 GB 등 안전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원단에서부터 작은 부자재, 달려있는 위치까지도 세세하게 규정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여 디자인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선입견입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만들기 쉬운 것이라는 선입견이 큰 편입니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동복이기 때문에 소재는 좋아야 한다는 선입견이 존재하여 양극단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어려운 편입니다. 셋째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테스트(취향)가 존재합니다. 소비자가 엄마, 아빠에서 그치지 않고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 등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선물용으로 옷을 구입하기 때문에 정확한 타겟팅이 힘든 편입니다. 실무매에서부터 선물용까지 목적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한 매장에 어우러지게 세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5. 디자인을 할 때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요?

처음 모이몰른을 론칭하며 내세웠던 전략은 '없던 브랜드를 만들자'였습니다. 핑크, 블루 일색인 시장에서 툭다운된 풍부한 컬러, 유니크한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만들자란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토들러 라인도 그에 맞춰 트렌디하면서 유니크한 제품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조금 더 실용적이고 편안한, 활동적인 아이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전체 컬러 및 스타일링, 행거링까지 고민하는 편이며 현재는 타브랜드에는 없는 모이몰른만의 개성이 보이는 소재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 최근에 가장 공을 들였던 아동복은 무엇인가요?

사실 모든 디자이너가 그렇듯 늘 공을 들이는 타입이라 가장 공을 들였던 디자인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만족했던 디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을 겨울 제품은 가격대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나라면 소비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스팟점퍼와 팬츠는 고급스러운 스포티함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세련된 셋업 아이템으로 나와서 만족하고 마일로다운롱점퍼는 아웃핏과 컬러, 실용성까지 겸비한 아이템이라 마음에 듭니다.



7.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이 있다면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인스타그램 모이몰른을 입는 친구들 사진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판매율이나 개인의 만족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입고 스스로 태그를 걸고 게시물을 올리며 옷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낼 때 가장 뿌듯합니다.

8. 업무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있나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 이 부분을 채우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원가나 배수는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퀄리티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업체와의 의견조율이 항상 힘든 편입니다.



9. 한세드림 아동복, 경쟁사와 비교해 이런 점이 다르다 (이런 점은 자신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유니크한 디자인. 타브랜드에서는 없는 디자인을 보여준다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샘플도 없이 하얀 종이 위에 계속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그려보고 다시 그려보며 정말 노력하는데 다음 시즌에 양심 없이 그대로 카피하는 브랜드를 보면 정말 속상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라는 위안도 조금씩 얻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유니크함을 지향할 예정입니다.



10. 앞으로 이 업무를 맡게 될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처음 디자이너를 시작하고 5년차까지는 디자이너가 꿈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이 일을 즐기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디자이너를 말렸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하고요. 연봉, 복지 등 취업 시 고려되는 조건이 많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일을 하면서 본인이 즐거운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취향을 잘 분석해보고 본인과 잘 맞는 컨셉의 브랜드를 찾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모이몰른에 오기 전에 4군데의 브랜드를 거쳤는데 정말 취향에 맞는 컨셉의 우리 브랜드를 만난 후 6년 넘게 다니는 중입니다. 물론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케미도 아주 중요하지만 결국 본인이 만족하려면 본인의 디자인이 진심으로 예뻐야 하기 때문에 모두 가지려고 하지 말고 포커싱을 잘 하셔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신과 맞는 브랜드를 찾으면 한다면 제가 하는 모든 조언은 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11. 마지막으로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무려 6년, 햇수로 7년이란 시간 동안 한세드림 모이몰른에서 최장기간 근무 중입니다. 론칭한 브랜드에 대한 애정,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의 케미, 모두 다 부족함 없이 좋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동복을 기초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워킹맘이나 임산부들에 대한 복지제도가 조금 더 보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미혼이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제도도 더욱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직적 구조보다 수평적 구조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세실업, 'SWDW 2019' 혁신 기업가와 함께 한 스페셜 토크 진행

한세실업(대표 김익환)이 12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진행된 '서울 워크 디자인 워크 2019'(SEOUL WORK DESIGN WEEK 2019, 이하 SWDW 2019)에 참가해 기업 혁신을 주제로 진행한 스페셜 토크를 성료했다.

SWDW 2019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일의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젝트로, 한세실업이 2년 연속 공식 후원사로 나섰다. '내일의 내 일'이라는 주제로 12일 막을 올린 행사는 오는 15일까지 나흘간 진행된다. 섬유·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참가한 한세실업은 개막 첫날 '김익환이 만난 혁신 기업가'라는 타이틀로 토크를 진행했다.

이날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는 모더레이터(moderator)로 나서 신애련 안다르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와 이야기를 나눴다. 각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4시간 동안 진행된 토크에도 참가객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다. 수많은 참가객의 관심 속에 김익환 대표와 패널



들은 리더로서 겪은 다양한 경험과 기업 혁신에 대한 가치관을 전했다. 또한 일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나누며 참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 김익환 대표는 열렬한 박수와 함께 토크를 마무리지었다.

김익환 대표는 "한세실업이 2년 연속 후원한 SWDW에서 혁신 기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한세실업 역시 패션업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제33회 '섬유의 날' 행사 임직원 4명 유공자 수상

한세실업은 지난 11일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제33회 '섬유의 날' 기념행사에서 임직원 4명이 섬유·패션산업 공로자로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포상자는 김홍규 베트남 GAP 영업부 부장과 신상호 과테말라 피놀라(PINULA)법인 샘플실 실장, 김상률 베트남 VN법인장, 양희영 베트남 TN법인 공장장이다. 김홍규 부장은 섬유패션 제품수출에 대한 공로를, 신상호 실장은 품질 고급화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상률 법인장은 우수한 업무 관리와 지원으로, 양희영 공장장은 현장모범사원으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행사는 국내산업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불 달성을 기념하고자 매년 11월 11일에 지정된 '섬유의 날'을 맞아 개최되었다. 강남 섬유센터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과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섬유패션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나눴다.

장관상을 수상한 한세실업 김홍규 부장은 "섬유패션업계가 주는 뜻 깊은 상을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한세실업과 함께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RAVO

한세실업 밴드동호회 G24

제8회 정기공연 'Bravo My Life' 현장스케치

MY LIFE



10월 18일 금요일 저녁, 할로윈을 앞두고 들뜬 젊은이들로 가득한 홍대입구역을 지나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서니 동동거리는 드럼 소리와 날카로운 전자기타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음악소리를 따라 지하 공연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물들고 있었다. 이날은 한세실업 최장수 역사를 자랑하는 밴드 동호회 G24가 홍대 케이아트디딤홀에서 개최한 여덟번째 정기공연 'Bravo My Life'가 열리는 날이다.

이날 G24는 방탄소년단의 'IDOL', 박진영의 '날 떠나지마'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곡들을 록음악으로 편곡해서 연주했다. 록음악 외에도 애절한 발라드 곡 등 다양한 장르를 커버해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G24 멤버를 응원하는 플랜카드와 응원 머리띠를 단체로 맞추고 온 열성 관객들이 있어서 마치 아이돌 공연장에 온 듯했다. 다른 관객들도 공연장에서 무제한 제공되는 맥주와 음료를 마시면서 금요일 밤의 흥을 즐겼다. 경품 추첨 시간에는 G24 측에서 에어팟 등 참석자들이 좋아할 만한 경품을 미리 준비해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공연의 백미는 후반부였다. 프로젝트가 천장에서 내려오고 봄여름가을겨울의 'Bravo My Life'가 진전하게 배경음악으로 깔렸다. 프로젝터로 G24 회원들의 청춘시절 모습 등 인생에서 빛나는 순간들을 사진으로 보여줬다. 빛나는 순간들을 보여준 후 보컬들이 한 명씩 무대위로 올라가 관객들과 함께 'Bravo My Life'를 열창했다. 고된 삶을 위로하고 인생을 예찬하는 노래를 다 함께 부르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관객들은 입을 모았다.

<동호회장 인터뷰 - 한세실업 경영정보팀 윤재웅 과장>

1. G24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G24는 2011년 탄생한 사내 밴드 동호회입니다. 현재는 홀딩스, 한세실업, 예스24, 동아출판, FRJ 에서 근무 중인 임직원들 약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G24라는 동호회 이름에는 '그룹사운드(Groupsound)'에 회사가 추구하는 '글로벌 기업' '글로벌 인재'의 뜻을 담았습니다. 현재 약 8년간 매년 정기공연과 한세실업 전사 체육대회, 동아출판 70주년 기념행사, 예스24 20주년 기념 행사 공연을 했습니다.

2. 회원들의 직급 및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G24는 인턴부터 부장님까지,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섞여 있는 동호회입니다. 동호회에서 직급/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냥 좋은 선후배 동료로서 수평적인 관계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동호회 활동은 며칠 간격으로 하시나요?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나요?

평소에는 매주 수요일 홍대에 있는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공연이 가까워지면 일주일 내내 모여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연습을 위해 모이기도 하지만 그날 연습곡이 없더라도 응원을 하기 위해 아니면 그냥 동호회원들이 보고 싶어 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BRAVO MY LIFE



4. G24 동호회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꼽자면요?

G24 동호회 회원들은 모두 세대를 뛰어 넘는 회원님들입니다. 요즘은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 간 세대 차이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적어도 G24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도 너무 없을 정도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본인의 부족한 실력을 채우기 위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어 별도 레슨을 받기도 하고 혼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밴드는 혼자 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음악작업입니다. G24 회원 중에 악기 파트는 보컬을 위해 연주하고 보컬 파트는 악기를 위해 노래를 하며 서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고자 서로서로 배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원들이 모여서 현재 가장 오랫동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동호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 우리 동호회에서 자랑할만한 회원을 꼽자면요?

모든 회원이 모두 뛰어난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기를 한번도 다루보지 않은 회원들이 와서 동호회에서 차근차근 연습하여 악기의 주축이 되어 있는 회원, 대학 때 학교 앞 카페에서 노래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회원, 대학교 밴드를 했던 회원 등 모든 회원은 다 자랑할만한 회원들입니다. 특히 동호회에 계신 두 분의 부장님들이 동호회의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셔서 언제나 즐겁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6. Bravo My Life 공연에 대해서 소개해주세요.

이번에 진행된 공연은 G24의 8번째 정기공연입니다. 매년 정기공연은 주제를 정해서 공연을 해왔는데 올해는 일과 삶에 지쳐있는 임직원들과 함께 공연장에서 힘차게 "Bravo"를 한번 외치고 지금껏 힘들게 달려온 일과 삶을 되돌아 보며 또 다시 기운을 내어 뛰어보자는 의미에서 Bravo My Life 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공연에 참석하신 임직원 분들이 조금이나 위로받고 기운을 내셨기를 바랍니다.

7. 그 외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G24는 임직원들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나이, 성별, 직급, 실력에 상관 없이 계열사 직원이라면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족한 실력은 동호회에서 초빙한 Director가 채워 드릴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그냥 즐기시면 되는 동호회입니다. 무대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세요? 다른 계열사의 직원들과도 친해지고 싶으신가요? 악기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망설이지 마시고 G24에 노크해 주세요.

<우리 동아리 자랑 한마디>

한세실업 수출6A본부3부2팀 이재운 인턴

G24와 함께하는 수요일은 뜨거운 함성과 함께 무대에 서고 싶다는 제 꿈을 이루게 해주는 가슴 뛰는 시간입니다. 또한 평소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은 타 부서 및 계열사의 다양한 구성원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음악과 교류를 즐기시는 한세인이려면, G24 is an open door! 함께 즐겨보아요.

에스24 플랫폼개발팀 김현주 대리

악기 다룰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민하다가 가입했는데, 제 삶의 낙 중 하나가 된 것 같아요. 원하는 악기도 배울 수 있고, 좋은 사람들에 편안한 분위기까지! 매주 즐거운 합주로 힐링하고 갈 수 있는 동호회입니다.

동아출판 창의3실 국어팀 박만수 과장

지겨운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매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합주를 즐길 수 있는 G24! 1년에 한 번이지만 정기공연을 통해 수익금 전액을 기부함으로써 따뜻한 마음까지 전할 수 있는 G24!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는 G24와 함께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FRJ MD팀 남혜영 주임

평소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고 즐기고 또 공연까지 할 수 있는 G24! 단조로운 일상에 음악으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공연을 통해 뮤지션이 되는 느낌적인 느낌까지 받을 수 있는 매력적인 동아리입니다.



HANSAE

fashion worldwide



HCM 물류팀 INTRODUCTION

안녕하세요! 이번 사보를 통해 여러분에게 저희 HCM 물류팀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아마 한세의 많은 직원분들께서 한 번쯤은 저희와 메일로나마 일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팀에 대해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겠어요?

HCM물류팀은 2017년도 5월 신설되었고, 현재는 총 18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 HCM에서의 가장 큰 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세 물류팀의 업무는 외환, 구매, 통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중 외환파트 업무의 대부분을 HCM 물류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환파트의 주 업무는 통관서류 관련 수출입팀을 서포트하고, Invoice & BL 등 NEGO 서류 취합, 그리고 통관/클레임/입금 관련 이슈를 바이어와 디렉트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외환파트가 안정적으로 셋업됨에 이어 올해 9월에는 구매파트 또한 HCM 물류팀으로 이관을 시작하였는데요. GAP, MAST, CARHARTT 등 베트남에 있는 현지 영업팀의 구매업무 서포트를 시작으로 점차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HCM물류팀의 자랑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저희 팀은 평균 나이 25살로 젊고 의욕 넘치는 팀원들로 뭉쳐있습니다. 흔치않은 여초(여성초과)팀이지만, 팀원들끼리는 가족처럼 챙겨주고 업무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씩씩하게 열정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의 인원 수도 많아서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한 명 한 명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logistics team



PHAN THI BA
담당 바이어
GAP(CA&INI) / KOHL'S (VN) / MAST / PUMA

안녕하세요! My name is Ba.
I'm 1 of first members of HCM Logistics team.
So, I am able to see every stage of our team: 3 members at first time, grow up to 2-3 members... and 18 members as now. This is my pleasure. I'm happy that I can work on this team.
Thanks for support our team always!



HUYNH THI LOI
담당 바이어
GAP(HAITI) / AGSK(WOVEN) / CARHARTT

Hello, my name is Loi, also known as Doctor Slump.
The most interesting buyer but also the hardest that I've handled is GAP. GAP makes my heart feels stronger than ever.
To be one of first members of HCM Logistics team, I'm so happy to see how team is growing bigger and more sustainable to able to continue supporting related divisions. Hope we can go further in the future.



NGUYEN THI THANH THUY
담당 바이어
CATER'S / TARGET(VN&HAITI)

Hi everyone, I am Jasmin. It is my great honor to have some words here. I have been working in Hansae HCM logistics team for two years, taking responsibility for checking shipping documents and following up to ensure document submission within timeframe. Besides OSCT and Target, I used to handle AEO and AGSK also. Thank you always for your kind support and helpful instruction during my work ^^
I am keen on learning the new things and traveling. Work hard, play harder.



NGUYEN THI THAO
담당 바이어
GAP WOVEN / KOHL'S(VN) / CATER'S

Hello everyone , I'm Thao and I have been working in HCM Logistics team for 2 years and this is my second family .My colleague is very lovely and friendly , I love my team so much and I also like Korea .If I have a chance I'll visit Korea on appropriate time .



NGUYEN THI HUYEN TRANG
담당 바이어
GAP(VN)

My name is Trang . I'm 30 years old. I've married for 2 years and I had a one little cute boy . After having worked for 7 years, I realized my strength is endurance and wariness once I've changed many jobs around Hansae such as statistical staff, receptionist, export staff, and now I work as a staff in logistics team .
Hansae is as my second house. I like work-environment in Hansae the most because all my managers are really good, kind and all my co-workers are so friendly as well.
I'm happy to be here^^



NGUYEN DINH PHUONG
담당 바이어
WALMART / THE CHILDREN'S PLACE

My major is Hospitality but now working for HANSAE in Logistics team.
We are such a compatible collaboration somehow or the others as destiny.
I'm handling Documents performance of WALMART & TCP.
My job works well just because first of all, it's POSITIVE and Theory of Career Path)
☆TSCHÜSS☆

INTRODUCTION



DO THI PHUONG DUNG

담당 바이어

GAP(VN) / HANES PBMS

Hi! I'm Beanie. May you all wonder why I was a "Beanie" kkk just because my last name is "Đỗ" which means a bean in English so my team call me a friendly name like "Beanie"
 "Luckily" I have joined Logistics team to handle one of the most significant Buyer of Hansae which is GAP. Since that day I had to change myself to be more productive. Handling Gap shipments mean staying calm and durable but thankfully, i've got the best teammates and manager in the world to support and help me through any difficulties i encounter.



PHAN HA VY

담당 바이어

KOHL'S(INI) / H&M / ARITZIA

Among those buyers & factories I am now handling, Kohl's & PT. Heses Indonesia are inevitably becoming one of my most unforgettable memories in Hansae. I used to experience an arduous period with them but everything is now better thanks to my day-by-day efforts and supports from my managers. Pressure, stress and even tears during such period have not only provided me with opportunities to develop myself but also taught me lots of priceless lessons in my life: "If we can see the possibilities, we can harness the opportunities from situations that may seem negative at first glance."



NGUYEN LE MY DUNG

담당 바이어

TARGET (CA) / CATER'S

Hello, I'm Dung from Logistics Team. Because there is another member named Dung in our team so others usually called me by nickname – Rau (vegetables in Vietnamese) – since I don't like Vegetables. I'm currently handle a buyer called TARGET. My job is to make sure there will be no discrepancy in documents process and help the exportation go smoothly. Thank you.



NGUYEN NHAT KHANH

담당 바이어

KOHL'S (CA)

Hello everyone, I am beautiful Khanh – loving pink, liking perfume, hating lies. I have just been in Hansae for 3 months, my job is handling documents and payment & claim for KOHLS. Hopefully, my colleagues who work with me seeing this post will sympathize this newbie for mistakes in working process. By the way, I am waiting for result of military service, hope I will fail this test to be able to work with everyone longer or It is still good to serve my country (: Therefore, during this period, hope to get acquainted to more MALE colleagues. Nice to meet you all!



DUONG MY TRAN

담당 바이어

TARGET(INI) / SAM'S CLUB / POLO RALPH LAUREN

Hi everyone!
 My name is Tran and I just got 22 years old this August. I have just joined Hansae HCM logiscitics team since July. I'm a food lover and I like going to the cimema, coffee shops in relaxing time. Sharing a bit of my traits, I am a left handed and i have a sense of humour but normally it just shows up when i am with people who are close to me :))



PHAM HONG DUY PHUC

담당 업무

Purchasing (구매)

Hi everyone, I'm Alex. Just being in Hansae for 3 months but I feel like it has been 30 months already ^^ . I am now in a new team called Purchasing team which is another part of Logistics division. Purchasing team is on the way to become the ownership of the payment process for fabrics and trims of all buyers in Hansae HCM. Simply you can understand that I am supporting you on your payment to suppliers whenever your team need to purchase any raw materials for production. Ah, anyway, I am still single, if you find interesting, you can contact my manager: Mr. Kim Young Chul.



NGUYEN AN THANH

담당 바이어

AEO / HANES DIRECT / JC PENNY

5 TIPS TO ACT AND LOOK LIKE A GUY IN LOGISTICS
Tip#1. You need to have a good health to lift up big water can in the pantry every morning (first task of the day)
Tip#2. You have to be a "detective" when checking documents from factory (hundreds of shipments every month)
Tip#3. Stay calm and be nice in every situations when having troubles from third party
Tip#4. Willing to help others around
Tip#5. Good organization of your work (1 person has to handle at least 2 Buyers)
Last but not least, i've been in the kindest working environment (both my manager and colleagues)
Another fun fact: There are only 4 guys out of 18 in total members



DO THANH NAM TRAN

담당 바이어

KOHL'S (CA) / GIII

Hello everyone! My name is Tran ^^ I am excited to be joining the team as a Logistics staff.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garment industry, so joining our company seemed like the next logical step. I got a huge welcome from my team members who are always eager to learn, hopeful and excited every day. I am amazed at the incredible work they do and excited to jump in and start learning the ropes!
 I am honored to be part of a great team and also our company.



LE THI DUYEN

담당 바이어

MAST / AGSK-KNIT

Hello from Ho Chi Minh city. You can call me Duyen or Jane also. My daily work in Hansae is to work with factories and manage shipping docs sent correctly to buyers on time and handle nego every week. I am wearing a conical hat, one of the traditional items . Let's try it on if you come to Vietnam. It is so cool for picture, for sure.



TRAN BAO NGAN

담당 업무

Purchasing (구매)

Hi Everyone, My name's Ngan . Even though I have worked with Hansae for 9 years but this is the first time I work at Hansae HCM. It would be my pleasant to work with all of you in a new field T/T and L/C . Because I'm new here so I would like to receive not only your support but also your friendship. We can hang out anytime and share our experience about work and HCM life. Thank you !



Vietnam
 Ho chi minh

logistics
 team

한세엠케이 앤듀 X 세계자연기금(WWF) 에코 콜라보 “LOVE EARTH” 출시



환경 보호 앞장서는 '착한 패션'

한세엠케이의 스타일리시 어반 캐주얼 브랜드 앤듀(ANDEW)가 세계자연기금(WWF)과 손잡고 친환경 패션의 선두에 나서며 '착한 패션'으로 주목받고 있다. 앤듀는 패션 업계를 강타한 지속 가능한 패션, 필(必) 환경 트렌드에 맞추어 지난 S/S 시즌 WWF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멸종위기 동물과 환경 보호 내용을 티셔츠에 담아 친환경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에코슈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F/W 시즌에는 지구를 모티브로 한 그래픽과 레터링을 더한 아이템으로 지구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아이템을 출시했다. 콜라보레이션 신제품은 맨투맨, 후드 등의 캐주얼한 아이템으로 구성됐다. 남녀 구분 없이 착용할 수 있으며, 데님, 블랙진과도 멋스럽게 어울려 데일리룩으로 제격이다. 블랙 컬러의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지구를 모티브로 한 그래픽, 레터링 프린트가 더해져 포인트 아이템으로도 추천된다. 또한 천연 오가닉 소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촉감은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 이벤트

앤듀는 이번 'LOVE EARTH' 콜라보 출시를 기념해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9월 20일부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지구에 대한 상식이 기재된 '지구 빙고 카드'에 콜라보 제품 구입 시 증정하는 스티커를 부착해 빙고를 맞추는 '지구 빙고 카드' 이벤트를 진행했다. 2개 이상의 스티커를 모으면 앤듀 제품 할인권을 받을 수 있어 지구에 대해 몰랐던 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온라인에서는 앤듀와 WWF가 주관하여 지구에 대한 상식을 모은 "지구알기 영역" 평가를 실시했다. 멸종 위기 동물, 지구의 날 등 환경 보호에 관한 상식을 문제로 출제, 만점자 중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증정했다. 지구와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독려하는 위 이벤트는 오는 9월 20일부터 앤듀 공식 SNS를 통해 한달 간 진행되었다. 앤듀 관계자는 "친환경 패션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번 WWF 협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많은 참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세실업, 세계 1위 섬유 단과대와 산학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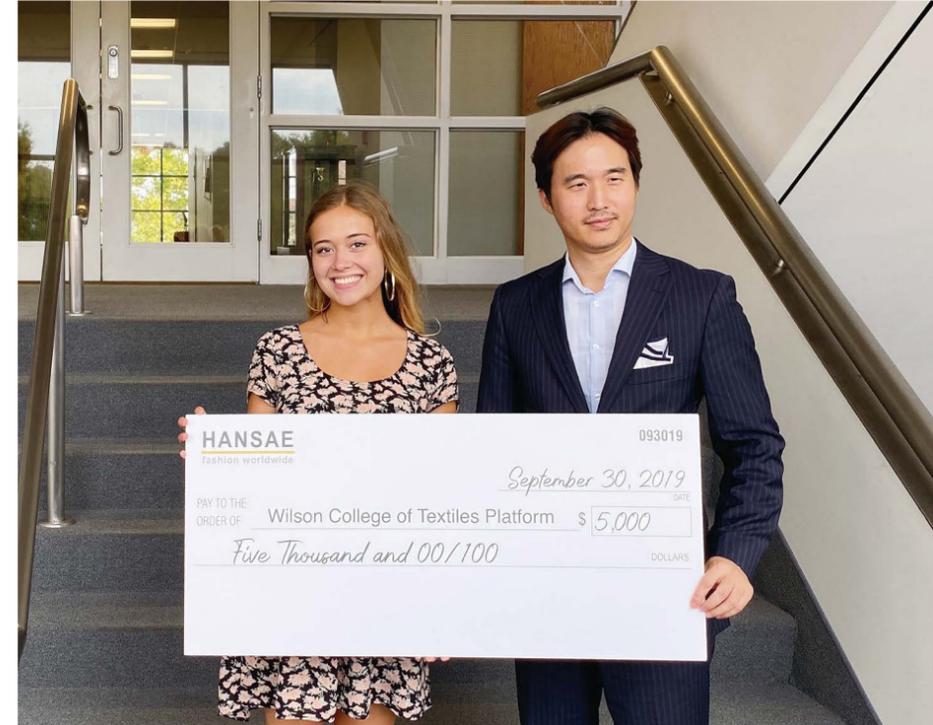
한세실업은 지난 9월 30일 11시(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이하 NCSU) 윌슨 칼리지(Wilson College of Textiles)와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열린 MOU 체결식에는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와 데이비드 힌크스(David Hinks) 윌슨 칼리지 총장을 포함한 한세실업, NCSU의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통해 한세실업은 NCSU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한세실업 베트남 법인 방문 프로그램을 비롯해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NCSU 학생들이 발행하는 매거진 출판을 공식 후원해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여기에 NCSU의 다양한 산학협력 기업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패션 트렌드 및 기술과 관련한 학술 세미나, 새로운 섬유 소재 개발 진행 등 중장기적인 프로그램까지 계획되어 있다.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는 "세계 1위 섬유 단과대학인 윌슨 칼리지와의 협약을 통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겠다"며 "다방면의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미국 섬유 산업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초석을 다질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889년 개교한 윌슨 칼리지는 미국 내 섬유 생산 2위를 차지하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해있다. 미국 상위 100위 대학에 선정된 노스캐롤라이나 주립 종합대학교에 속한 세계 1위 섬유 단과대학으로 알려져 있으며, 1100여 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섬유-의류 기술경영학과와 섬유 화학학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 섬유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의 90%, 관리직 중 사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등 수준 높은 교육으로 섬유 산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연간 1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산학협력에 참여할 정도로 우수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한세실업, 6년 연속 '문화햇살콘서트' 후원으로 문화나눔에 기여

지난 9월 28일, 한세실업의 후원하에 '2019 예술의전당 문화햇살콘서트'가 열렸다. 문화햇살콘서트는 평소 문화생활을 접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 음악회로, 예술의전당이 주최하고 한세실업이 2014년부터 6년 동안 후원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지난 6년간 문화햇살콘서트를 통해 약 3000명의 이웃에게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에는 한세실업 임직원과 탈북자, 저소득 가정 등 문화소외계층을 포함한 500여 명의 관람객이 초청되어 뮤지컬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 갈라'를 주제로 예술의전당 IBK 챔버 홀에서 진행되었다. <지킬앤하이드>의 'In his eyes'와 <오페라의 유령>의 'All I ask of you'를 비롯, 영화 <알라딘> OST인 'A whole new world' 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익숙한 음악들로 무대가 채워졌다. 공연에는 뮤지컬 <엘리자벳>, <지킬앤하이드> 등에서 활약한 배우 김선영과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등에 출연한 배우 김아선, 윤영석이 출연했다. 김익환 한세실업 대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을 6년 연속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폭넓은 계층이 문화생활을 부담 없이 접할 수 있도록 문화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문화햇살콘서트 외에도 베트남 호치민시 음악 경연대회를 후원한 바 있으며, 도서 기증에도 참여하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 나눔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세실업 하유선 부장, 'ICT 스마트섬유 경진대회' 장관 표창 수상

지난 8월 28일 한국섬유수출입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9 ICT 스마트섬유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한세실업 하유선 R&D 본부 Technical Service(TS부) 부서장이 '3D 의상디자인 활성화' 부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유선 부서장은 3D 의상디자인 기술 도입과 활성화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내 섬유패션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2007년 한세실업에 입사한 하유선 부서장은 13년 동안 업무를 이행하며 한세실업을 글로벌 패션 전문 기업으로 이끄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패션 업계의 변화와 흐름을 발빠르게 파악하며 TS부에서 Technical design, Virtual design(3D), Color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하유선 부서장은 "회사에서 3D 의상디자인 활성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다"며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며, 앞으로도 업계와 바이어를 리드해 회사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관련 산업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ICT 스마트섬유 경진대회는 미래 지향적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한 혁신적 ICT 섬유제품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기획됐다. 8월 2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열린 이번 경진대회 시상식은 ICT 스마트섬유 제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3D 크리에이티브 디자인 경진대회 시상, 이어 산업 유공자 장관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좋은 옷이 최고의 성적을 만든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저력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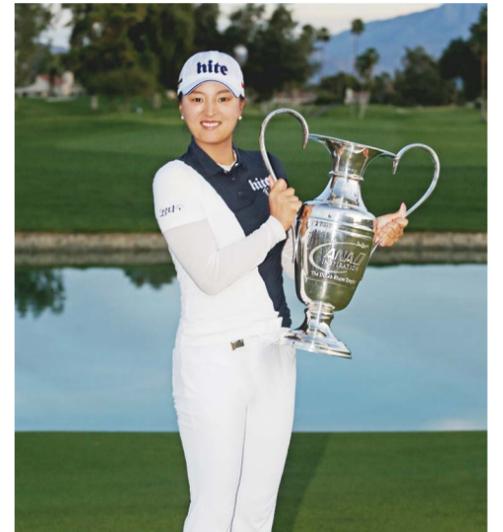
올해 승리의 트로피를 거머쥔 골프 여전사들이 'LPGA 골프웨어'를 입고 경기에 출전했던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트렌디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올 시즌 <승리를 이끈 우승룩>으로 입소문이 퍼지며 주목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한세엠케이는 지난해 1월 LPGA 골프웨어 선수단을 창단하고 자사 후원 선수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발표했다. 창단 2년차인 올해는 정규 투어에서 8명의 선수를 후원했으며, 이 중 고진영 프로를 비롯해 장하나, 임희정, 이승연 등 4명이 LPGA와 KLPGA 양대 투어에서 승리를 기록했다.

지난 3월 24일 LPGA투어뱅크 오브 호프 파운데이션컵에 나선 고진영 프로는 우수한 성적으로 우승, 승리 행진의 서막을 열었다. 이어, KLPGA투어에서는 임희정, 이승연 프로가 4승을 기록하며 루키 돌풍을 일으켰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7일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는 장하나 프로가 연장 접전 속에 초대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 왕좌를 빛냈다. 장하나 프로의 우승으로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4주 연속 우승을 기록하며 골든 멘스를 평정했다. 뿐만 아니라, 데뷔 때부터 LPGA 골프웨어와 함께한 고진영 프로가 이번 시즌 5승을 기록하며 세계 랭킹 1위에 등극한 것은 물론, 2019년 롤렉스 LPGA 어워드 올해의 선수상까지 확정하며 파워를 증명하기도 했다. 후원 선수들의 승리기도와 함께 그녀들이 공통적으로 입었던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우수한 기능성에 다시 한 번 관심이 쏠리고 있다. 뛰어난 소재와 최적의 패턴이 제공하는 편안한 착용감, 탁월한 신축성과 복원력이 선사하는 자유로운 활동성 등이 최상의 컨디션과 안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 우승을 이끌었다는 평이다. 선수의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과 소재 개발을 위한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노력이 열매를 맺은 셈이다.

이러한 성과를 기념하며,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다채로운 이벤트를 열고 소비자들을 만난다. 11월 24일까지 30만원 이상 구매 고객 중 1,100명 추첨을 통해 100만원 상당의 골드바, 캐디백 등 풍성한 선물을 제공할 예정이다.

PGA TOUR & LPGA 골프웨어 관계자는 "후원 선수들이 LPGA 5승, KLPGA 6승 등 이번 시즌 통합 11승의 쾌거를 올리고 PGA TOUR & LPGA 골프웨어가 선수들에게 좋은 성적을 만들어낸 것을 증명하였다."며, "앞으로도 후원 선수들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선수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세엠케이는 LPGA골프웨어에 이어 지난 8월 PGA TOUR를 전격 런칭했으며, 전국 55개점의 LPGA골프웨어 매장을 PGA TOUR가 입점된 복합 매장으로 탈바꿈해 골프웨어 시장 재편에 나서고 있다.





한세실업,
니카라과 현지 직원들 위한
체력단련실 완공



한세실업 니카라과 법인이 직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을 완공했다. 한세실업은 지난 5월부터 사내 복지 일환으로 니카라과 법인 기숙사 내부에 체력단련실을 준비했다. 총 면적 180제곱미터(약 54평) 규모의 체력단련실은 러닝머신, 필라테스 머신, 당구대, 탁구대 등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휴식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9월 27일에는 정순영 한세실업 중미총괄법인장과 김태훈 니카라과 법인장 등 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 체력단련실 완공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커팅식을 시작으로 체력단련실 사용의 주의사항을 전하는 등 약 4개월 걸친 무사 완공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니카라과 법인에서 근무 중인 채종호 주임은 "해외생활을 하면서 체력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됐지만 그동안 환경이 여의치 않았다. 체력단련실 오픈 이후 업무와 일상생활 모두 활력이 생겨 니카라과 법인 식구들 모두 만족도가 높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세실업은 니카라과를 비롯한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본사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제도를 비롯한 우수사원 뉴욕연수, 장기 근속자 해외관광, 직장 어린이집, 사내 외국어 교육 지원, 단기 MBA 교육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





한세실업 신입사원 26차 정직원 전환식

“한세실업의 미래를 책임질 R&D 본부 신입사원 8명이 정직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10월 8일 화요일, 한세실업 26차 신입사원 8명이 인턴을 수료하고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이날 정직원 전환식에서 8명의 신입사원들은 팔로워십 교육을 받고, 부모님께 보낼 감사편지를 작성하고 의류 샘플을 포장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한세실업의 가족이 되었음을 부모님께 알리는 오랜 전통 중 하나입니다. 전환식에는 R&D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항미 상무가 참석해 따뜻한 응원과 격려, 그리고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세실업, 해외법인 현지직원 초청 ‘글로벌 한세인’ 실시



한세실업이 베트남 해외법인 현지직원을 국내로 초청해 ‘글로벌 한세인’ 행사를 했다. 1992년을 시작으로 올해 28회를 맞이한 글로벌 한세인 행사는 한세실업 해외법인 현지직원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와 함께 국내 직원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8월 31일부터 3박 4일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VN, TN, TG 각 현지법인의 중국, 필리핀 국적 우수 직원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한세실업 여의도 본사 투어와 함께 경복궁·인사동·청계천·남산타워·잠실롯데월드타워·한강 등 서울의 명소들을 방문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세실업 TG법인에 근무하는 Donna 사원은 “글로벌 한세인 행사를 통해 한국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며 “특별히 초청해 준 본사에 감사드리며, 베트남으로 돌아가 한국에서의 뜻깊은 경험을 현지 직원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한세실업은 베트남에 5개 법인을 두고 있으며 2만 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미얀마,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과테말라, 아이티, 미국 등 8개국에 24개 법인 및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한세실업은 신입사원 베트남 연수 및 우수사원 미주연수, 외국어 교육 지원, 직장 어린이집, 전자도서관 등 다양한 복리후생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한세실업 김익환 대표, 과테말라 차기 부통령 · 사회개발부 장관과 회동

한세실업 김익환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내년 1월 취임을 앞둔 과테말라 부통령 당선인 등 차기 내각 인사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과테말라 정부 인사들은 현지 투자와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세실업에서는 김 대표를 비롯해 정재준 상무, 김경 전무 등이 참석했다. 과테말라 정부 측에서는 내년 1월 14일 취임 예정인 기예르모 카스티요(Cesar Guillermo Castillo) 부통령 당선인과 라울 로메로(Raul Romero) 사회개발부 장관 내정자 등 주요 인사 총 5명이 참석해 과테말라 산업 정책을 소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세실업 김익환 대표는 "과테말라 정부가 투자 유치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만큼 한세실업도 지속적으로 협력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과테말라 신규 정부와 한세실업과의 유대 관계를 증대시키고 협력을 이뤄낼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라고 미팅 후 소감을 밝혔다.

지난 2005년 과테말라에 진출한 한세실업은 3개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약 2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과테말라에 위치한 한세 베놀라(PINULA) 법인은 베트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빠른 실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과테말라 섬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 과테말라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진행된 '제55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미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니카라과 등 8개국에 23개 법인 및 해외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 한세실업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의류를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 패션 전문기업이다. 서울 본사 600여 명과 해외 생산기지 약 3만여 명의 근로자,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 약 5만 명이 근무하고 있는 한세실업은 OEM-ODM 전문기업에서 창조적 패션 디자인 기업으로 발돋움 중이다.



제 7회 컬리수 프렌치 식사 에티켓 클래스

일시: 2019. 10. 25

1) 런치코스 오후 12시~2시

2) 디저코스 오후 5시~7시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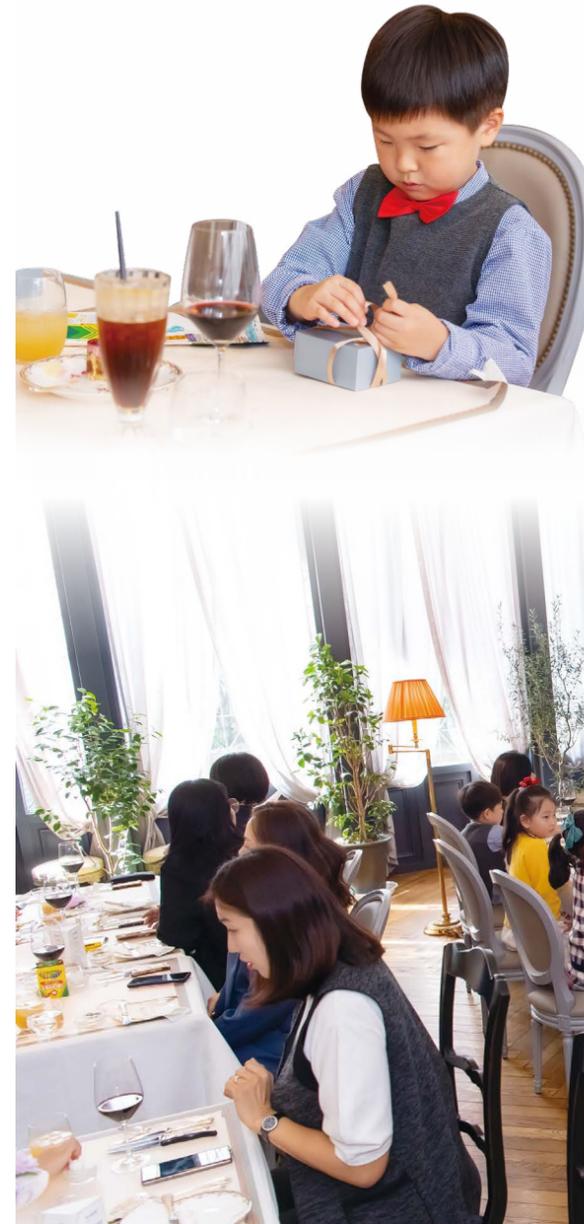
부산 해운대구 센텀북대로 소재
프렌치 레스토랑 '르공비브'

클래스 강사:

'르공비브' 허 찬 셰프, 박인수 소믈리에

참여 인원:

총 41팀 (런치코스 18팀 / 디저코스 23팀)



컬리수 친구들 “프렌치 식사 예절, 엄마랑 배웠어요”

국내 대표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의 프렌치 시크 감성 브랜드 컬리수는 지난 25일 부산에서 열린 '제7회 프렌치 식사 에티켓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컬리수의 프렌치 식사 에티켓 클래스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프렌치 코스 요리를 즐기면서, 프랑스식 식사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행사다. 7회째인 이번 행사는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레스토랑 '르공비브'에서 열렸다. 행사는 런치코스(오후 12시~2시)와 디저코스(오후 5시~7시) 두 타임으로 진행됐다. 각 시간대별로 부모와 5~8세 영유아 자녀로 구성된 28개의 팀이 참석, 총 100여 명의 인원이 현장을 방문해 프렌치 식사 예절도 배우고 추억도 쌓았다.

클래스 강사로 나선 르공비브의 허찬 셰프는 아이들 한명 한명 눈을 맞추며 레스토랑 이용과 식사 에티켓을 친절하게 설명했고 박인수 소믈리에에는 부모들을 위해 와인의 종류와 마시는 법을 상세하게 소개해 참가자들의 찬사를 받았다. 행사 전후 이벤트도 진행됐다. 한세드림은 럭키드로우 추첨을 통해 컬리수 F/W 신제품을 선물했고, 참가자 전원에게 컬러링북 세트와 멸종 위기 동물 캐릭터 담요, 휴대용 돛자리, 보냉백, 축구공, 양말 등을 증정했다.

은수빈 한세드림 마케팅팀장은 “프렌치 식사 에티켓 클래스를 개최할 때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 신청이 쏟아져 행사에 대한 고객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한다”면서 “앞으로도 컬리수는 고객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더욱 좋은 제품과 다양한 행사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컬리수는 플리스, 친환경 등 패션 업계 대세로 떠오른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한 겨울 아우터 제품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컬리수 축구대잔치리틀 K리그



soccer



festival



제 13회 컬리수 축구대잔치 in 대구

축구 꿈나무들의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내 대표 유아동복 기업 한세드림이 지난 9월 21~ 22일 대구 스타디움 보조 경기장에서 '제13회 컬리수 축구대잔치 리틀K리그'를 개최했다. 본 대회는 무료 유소년 축구 대회로, 개최 때마다 많은 축구 꿈나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컬리수의 대표적인 행사다.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전국 각지의 유치원 및 유소년 축구 교실 어린이팀(U-7) 총 80팀이 모여 승부를 펼쳤다.

전후반 각 25분씩 경기에 나선 선수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선을 다해 잔디밭 위를 누비며 각자의 실력을 뽐냈다. 승패에 관계없이 경기에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메달을 증정하고, 컬리수 유니폼과 축구공을 선물했다. 현장에는 경기에 참여한 어린이 선수와 부모, 지역 주민 등 약 4000여 명 관람객이 현장을 찾았다.

본 경기 외에도 버블체험전, 페이스 페인팅, 행운의 룰렛, 캐리커처 등의 다양한 부스가 마련돼 지역 주민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한세드림을 비롯한 한세에스24홀딩스의 계열사가 한 데 모여 '한세드림'이라는 부스를 마련하고 예코백, 피크닉매트, 멤버십 포인트 등 푸짐한 혜택을 제공했다.

한세드림 컬리수 한동수 사업부장은 "컬리수는 어린이들의 체육 놀이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3년 축구대잔치를 처음 개최한 이후 7년간 꾸준히 대회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행사는 "태풍으로 인해 일부 경기가 우천 취소되기도 했으나 대체로운 부대 행사와 풍성한 선물로 인해 관람객들 입가에는 웃음꽃이 피었다"고 전했다.

SEOUL



최아림

세르파 데님자켓
크롭 후디
배트윙 조가팬츠
바나나 슬링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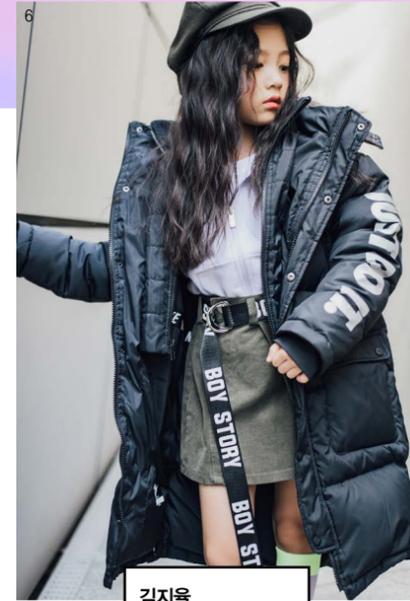
윤재욱

롱 다운 자켓
컬러블락 후디
워시드 볼캡



표수아

퍼후드다운점퍼
코어헤리티지볼캡
FL코어HBR후드풀집업
FL코어HBR팬츠



김지율

퍼후드다운점퍼
FLNSW후드풀집업



김원우

헤리티지패딩점퍼
FL카모후드풀집업
FL카모팬츠

서울패션위크(SFW) 단연 돋보였던 브랜드 스토리

많은 패션 브랜드 및 패션 피플의 관심 속에 서울패션위크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서울패션위크에서 키즈 패션으로 주목받았던 컬리수, 리바이스 키즈, 플레이키즈프로의 스타일링을 만나보시죠.



- 1, 2 | 리바이스키즈
- 3, 4 | 컬리수
- 5, 6 | 나이키키즈
- 7, 8 | 조던키즈
- 9, 10 | 컨버스키즈

FASHION WEEK



성채운

모던히트 방풍점퍼
멀티 기모후드티셔츠



안정우

모던히트 방풍점퍼
멀티 기모후드티셔츠
트월 속기모 레귤러팬츠



여지민

블락패딩베스트
FL 점프맨23맨투맨



홍유정

퀼팅패딩자켓
컨버스 스냅백
루렉스프렌치테리풀오버
루렉스프렌치테리팬츠
슈퍼플레이화이트그래픽



배유준

프린트미드다운자켓
CTP프린트티셔츠
우븐팬츠



PLAYKIZ!
COOL KIDS ZONE.

ART STUDIO
with 127!

2019.08.24(SAT)-25(SUN) 한남동 '드플로허'

플레이키즈프로
유니크한 가을 키즈 스타일 제안

한세드림의 키즈 스포츠 멀티스토어 플레이키즈프로가 2019년 가을 시즌 신제품을 새로운 스타일로 만나보는 '아트스튜디오'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아트스튜디오는 플레이키즈프로가 여는 첫 번째 오프라인 프로모션으로 시작 전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8월 24일부터 25일까지 한남동의 '드플로허'에서 열린 아트스튜디오에는 플레이키즈프로를 사랑하는 많은 고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번 전시는 일러스트레이터 127(일아침)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시즌 컨셉과 동일하게 나이키와 조던은 레트로, 캔버스는 스페이스에 중점을 두고 공간을 구성했으며, 각 브랜드의 유니크한 제품을 127작가만의 키치한 스타일로 재해석한 일러스트가 더해져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특히, 2019년 가을 시즌 아이템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데다, 제품을 이색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함께 마련되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아트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업로드한 관람객에게 추천을 통해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아트스튜디오'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색 전시로 입소문을 모은 만큼, 주말을 맞은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주를 이뤘다. 부모들은 자녀와 행복한 추억을 쌓을 수 있고, 아이들은 스티커, 엽서, L홀더로 구성된 굿즈 패키지를 선물 받을 수 있어 부모와 자녀 모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전시 개최와 함께 전국 플레이키즈프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진행된 '아트스튜디오 굿즈 증정 이벤트'는 현장에 방문하기 어려운 고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소진되며 아트스튜디오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한편, 지난 2015년 론칭한 플레이키즈프로는 나이키, 조던, 캔버스 등 대표 스포츠 브랜드의 키즈 라인 강화와 애슬레저 열풍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해왔다. 지난해에는 전국 78개의 매장, 400억원대의 실적을 기록하며 키즈 스포츠 패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충청권의 새로운 복합문화공간, 예스24 청주NC점



1일 충북 청주시 청주버스터미널 인근 청주NC백화점에 새롭게 들어선 예스24의 중고서점 '예스24 청주NC점' 내부 사진

YES24 Cheongju



예스24가 지난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청주버스터미널 인근 청주NC백화점에 중고서점 '예스24 청주NC점'을 오픈했다. 청주 지역 최대 복합몰인 청주NC백화점 7층에 입점한 예스24 청주NC점은 예스24가 충청권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중고서점이다. 최대 복합몰에 걸맞게 넉넉한 휴게 공간에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글짐을 모티브로 디자인 한 키즈존과 청주의 인기 디저트 카페 '홍홍제과'가 입점되어 있는 넓은 독서 공간은 지역 주민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345평 면적의 매장에는 9만여 권의 도서를 비롯해 최신 음반과 도서 소품 및 굿즈 등 폭넓은 상품들이 갖춰져 있으며, 작가 강연회와 원데이 클래스 등 독서의 흥미를 더해 줄 다양한 문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예스24 청주NC점의 영업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금요일부터 주말 동안은 1시간 연장된 오후 10시까지다.

김석환 예스24 대표이사는 "예스24 중고서점이 청주NC백화점에 입점함으로써 청주의 지역 주민들이 책을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 연령층이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는 충청권의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자리잡도록 다양한 문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예스24 중고서점은 청주NC점을 포함해 서울 강남, 목동, 홍대, 경기 기흥, 부산 서면, 수원 F1963, 대구 반월당 등 총 8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예스24 홍대점, 홍대 거리의 젊은 감성 담아 새 단장



예스24는 지난 2017년 문을 연 예스24 홍대점에 문학 서가와 기프트샵 공간을 확장하고, 독서 모임을 비롯해 작가와의 만남, 원데이 클래스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 공간으로 활용될 40석 규모의 커뮤니티룸을 마련했다. 커뮤니티룸 내 스튜디오에서는 팟캐스트 '책읽아웃' 방송 녹화가 매주 수요일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개의 층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스24 홍대점의 외부 또한 문학적 감성이 더해질 수 있도록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다. 창문 전면을 블루 커튼으로 감싼 후 시시각각 색상이 바뀌는 간접 조명을 설치하고, 한 쪽에는 대형 미디어 패널을 부착해 책을 테마로 한 감각적인 영상 콘텐츠를 선보였다. 예스24 홍대점의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김석환 예스24 대표는 "새롭게 리뉴얼 된 예스24 홍대점은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색다른 문화 행사를 갖춰 홍대를 찾는 젊은이들의 감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문화 공간을 표방하고 있다"며 "예스24 홍대점이 홍대 거리를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채로운 활동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스24 홍대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www.yes2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중고서점
'예스24 홍대점'이
홍대 거리의 젊은
감성을 입힌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YES24 Hongdae



TBJ, “나라사랑 가득” 한글날 기념 이벤트 개최

한세엠케이의 베이직 트렌디 캐주얼 브랜드 TBJ가 지난 10월 9일 한글날 기념 특별한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 토종 캐주얼 브랜드인 TBJ가 한글날을 맞이해 특별한 선물을 마련, 나라사랑의 의미를 전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TBJ는 이번 행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한 모든 고객에게 한글 배지를 증정하고,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타포린 재질로 이루어져 실용성이 뛰어난 한정판 쇼퍼백을 선물했다.

배지와 쇼퍼백에 적용된 그래픽 디자인은 한글 자음과 태극문양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데일리 패션 포인트로 삼기에 손색이 없다. 특히 최근 '플러스 대란'을 일으키며 트렌드 열풍의 중심에 있는 TBJ 뽀글이 점퍼와 매치하면 귀여우면서도 유니크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 더욱 주목받았다.

TBJ 한글날 이벤트는 전국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 예스24에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10월 1일부터 선물 소진 시까지 진행됐다.

TBJ 마케팅 담당자는 “올해로 573돌을 맞이한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한글을 미적 요소를 활용한 아이템을 선물로 준비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기념품을 전하는 동시에 나라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TBJ의 이번 시즌 주력 제품 중 하나인 TBJ 뽀글이 점퍼는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베이직한 스타일에 실용성을 겸비한 아이템으로 입소문이 나며, 출시와 동시에 트렌디한 감성을 추구하는 유스들의 F/W 시즌 필수템으로 떠올랐다.



창립 20주년 맞은 예스24, 한글날 맞아 예스24 서체 무료 배포

예스24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예스24만의 서체를 개발하고,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무료로 배포했다. 예스24가 선보인 서체는 '예스체', '예스 명조체', '예스 고딕체' 3종이다. 해당 서체들은 예스24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예스체'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가 뿜어나가는 허브로서의 예스24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햇살, 햇빛'을 그래픽 모티프로 디자인됐다. 또한, 서체 곳곳에는 예스24의 빠른 서비스 속도감을 표현한 직선, 문화허브로서의 신뢰감을 상징하는 각진 형태의 원,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나타낸 사선, 단단함과 운동감을 동시에 표현한 초성 'ㄱ'의 꺾임새 등 지난 20년 간 대한민국 대표 서점의 자리를 지켜온 예스24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겼다. 예스24 서체는 개인, 기업 사용자에 관계없이 각종 문서작성을 비롯한 인쇄, 출판, 웹, 모바일,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예스24의 승인 없이 변형, 재배포할 수 없으며, 예스24 서체를 활용한 기업명, 브랜드명, 상품명, 로고, 마크 등의 제작은 금지된다. 아울러, 예스24는 '예스체' 배포가 시작된 10월 7일부터 국내도서, 외국도서, 직배송중고도서/직배송기프트를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예스체가 새겨진 '모나미 153 볼펜 패키지'를 선착순 증정했다. 또한, 10월 9일 한글날부터 10월 말까지 전국의 예스24 중고서점에 16편의 한국 시를 '예스체'로 새긴 스탬프를 비치하는 건 물론, 스탬프를 활용해 나만의 카드를 만든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 사진을 업로드 한 고객 5명을 추첨해 예스24 상품권 5만원을 선물했다.

김석환 예스24 대표이사는 “예스24의 창립 20주년을 보다 뜻 깊게 기념하기 위해, 예스24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담아낸 서체를 개발하게 됐다”며, “한글날을 맞아 서체를 공개한 만큼, 보다 많은 분들이 '예스체'를 활용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스24 서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스24 홈페이지(www.yes24.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 특별 이벤트 실시

예스24가 지난 10월 2일 첫 방영을 시작한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의 제작 협조를 기념해 특별 이벤트를 실시했다. MBC 수목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극본 인지혜, 송하영/연출 김상협)는 무류 작가의 웹툰 <어쩌다 발견한 7월>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여고생 '은단오'가 자신이 만화 속 인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학원 판타지 로맨스물이다. 예스24는 극의 주요한 배경이 되는 캠퍼스 내 '스리고 도서관'에 3만 권에 이르는 책을 지원했다. 예스24는 이를 기념해 지난 10월 27일까지 드라마의 두 주인공 공 김혜윤(은단오 역), 로운(하루 역)이 이벤트를 위해 각각 추천한 도서 밀란 쿤데라의 <정체성>과 김수현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대한 북퀴즈 이벤트를 진행했다. 김혜윤 사인북, 로운 사인북, YES포인트 5,000원, FILA탄케이즈 등의 경품에 응모할 수 있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예스24는 '스리고 도서관'을 비롯한 드라마 촬영 현장을 탐방할 수 있는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다. 예상 탐방 일정을 맞춘 40명의 독자들을 초대해 드라마 촬영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Copyright 2019. MBC. All rights reserved.

tvN 금요드라마 '쌈니다 천리마마트'

미주가 사용하는 바로 그 책



동아출판이 tvN 금요드라마 '쌈니다 천리마마트'에 도서 협찬 중이다. '쌈니다 천리마마트'는 김규삼 작가의 네이버 웹툰을 드라마화한 작품으로 적자 상태에 빠진 마트를 살리기 위해 나선 점장과 마트 사장의 이야기를 그린 휴먼 코믹극이다. 드라마 3회부터 초등학생(고미주 역)이 등장하면서 마트 내 서점 코너가 만들어졌고, 동아출판 초등 교재들이 진열되어 보여졌다. 또한, 초등학생 연기자가 숙제를 하는 장면에서 동아출판의 '백집' 교재가 쓰이기도 했다. 드라마 회차가 진행될 때마다 서점 장면에서는 동아출판 교재가 자연스럽게 보여질 예정이니 '쌈니다 천리마마트'에서 마트 서점 또는 초등학생이 등장할 때 동아출판 교재를 찾아보는 쓸쓸한 재미를 느껴볼 수 있다.





버커루,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후원

BUCKAROO X



버커루가 2019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축제의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의 오리지널 빈티지 캐주얼 브랜드 버커루(BUCKAROO)는 2019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최종전에서 4인의 레이싱걸과 포토타임을 진행하며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지난 4월 시작을 알린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는 지난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마지막 8, 9 라운드를 끝으로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시즌 챔피언이 탄생하는 찬란한 순간이라는 뜻을 담은 'GOLDEN MOMENTS' 콘셉트로 꾸며진 마지막 라운드에는 MINI Challenge Korea, BMW M Class, GT, ASA 6000, Radical Cup Asia 시리즈의 결승을 향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박진감 넘치는 슈퍼레이스 현장은 인기 레이싱 모델들의 포토타임이 진행되며 더욱 뜨거운 분위기로 달구졌다. 이번 가을 시즌 대표 아우터로 꼽히는 버커루의 '선미 이상점퍼'와 애쉬드한 컬러감의 스모키진을 매치한 4명의 레이싱 모델들은 시크한 섹시미를 강조한 포즈와 눈빛으로 좌중을 압도하며 현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환호를 끌었다. 이날 레이싱 모델들이 입은 '선미 이상점퍼'는 버커루의 브랜드 모델인 가수 선미의 이름을 딴 제품으로, 간절기 시즌 대표 아우터이자 데일리 아이템으로 꼽히는 이상점퍼에 빈티지한 딥 컬러를 적용해 눈길을 끈다. 특히, 나일론 코튼 소재를 사용해 루즈한 핏감이 돋보이는 후드 스타일의 이상점퍼로 어떤 아이템과 매치해도 스타일리시하고 세련된 연출이 가능하다.

버커루 관계자는 "올 봄 CJ슈퍼레이스 개막전에서 선보인 스노우백 데님 인기 이상으로 선미 이상점퍼에 대한 고객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이번 제품에도 폭발적인 반응이 기대된다"며 "쌀쌀한 날씨에도 스타일리시함은 살리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선미 이상점퍼로 가을 패션의 정석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버커루는 지난 9월 브랜드 모델 선미와 훈남 댄서 차현승이 선보인 딥 컬러 무드의 가을 이상점퍼 카탈로그 화보를 공개, 스타일 아이콘 선미가 선택한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며 트렌디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춘 가을 패션의 필수템으로 화제를 모았다.

SUPERRACE





PGA TOUR & LPGA 골프웨어 배우 '유연석 팬사인회' 성료

국내 대표 패션기업 한세엠케이(대표 김동녕, 김문환)의 트렌디 퍼포먼스 골프웨어 'PGA TOUR & LPGA 골프웨어'는 지난 10월 26일 자사 모델인 배우 유연석과 함께하는 팬사인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팬사인회는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하이브리드 테크 제품 출시를 기념해 진행됐다. 행사가 열린 롯데백화점 명동 본점 6층 PGA TOUR & LPGA 골프웨어 복합 매장 앞에서는 참석권 소지자 100명을 포함해 수많은 인파가 몰리며 유연석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유연석은 '하이브리드 테크' 제품을 착용하고 팬들 앞에 나서 우월한 기력지를 뽐냈다. 팬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유연석의 모습에 여기저기서 부러움의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 PGA TOUR & LPGA 골프웨어의 '하이브리드 테크' 제품을 구매한 참가자들의 찬사도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하이브리드 테크 제품이 보온성, 경량성 등의 우수한 기능성에 트렌디한 디자인, 섬세한 디테일을 갖춰 골프 라운딩은 물론, 일상 생활에서도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며 좋은 반응을 보였다.

한세엠케이 골프 브랜드 마케팅 담당자는 "PGA TOUR와 LPGA 골프웨어의 모델인 배우 유연석의 팬사인회를 통해 많은 고객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뿌듯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더욱 뛰어난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고기능성 제품 개발에 힘 쓸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세엠케이는 지난 8월 PGA TOUR 런칭과 함께 전국 55개점의 LPGA 골프웨어 매장을 복합 매장으로 탈바꿈, 한층 폭 넓은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다. 더욱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장하나 프로의 우승을 비롯해, LPGA 골프웨어에 소속된 고진영, 임희정, 이승연 프로 등이 4주 연속 승리, 시즌 도합 11승의 대기록을 세우며 승승장구를 이어가고 있어 '프로가 선택한 골프웨어'로 주목받고 있다.



한세에스24문화재단,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 전시 개최



이번 미술전은 에스24 고객들이 직접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더욱 특별했다. 재단은 에스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 350여 명 중 80명을 선정해 8월 31일 서울 중구 남학당에 초청했다. 이 자리에서 고객들은 제드 메리노와 함께 에스24가 제공한 책과 한세실업과 재단이 후원한 의류 원단, 실을 가지고 나만의 사연을 담은 작품을 만들었다. 제드 메리노와 최은주 대구미술관장이 직접 16개의 전시 작품을 선정 했다. 워크숍에 참여한 에스24 고객들은 전시기간 직접 방문해 본인의 작품이 어떻게 예술작품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한 뒤 반가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9월 4일 진행된 오프닝 세레머니에는 홍석인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과 노에 알바노 왕(NOE A.WONG) 주한 필리핀 대사, 모하마드 아쉬리 무다(Dato' Mohd Ashri Muda)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핑에란 하자 누리아 핑에란 하지 유소프(Dk Nooriyah Pg Yusoff) 주한 브루나이 대사 등 내외귀빈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여작가 가운데 제드 메리노, 키티 카부로, 루 메디나와 필리핀 화랑 아트인포멀의 큐레이터 로레토 프란시스코 바티스타, 또 다른 화랑 더드로잉룸의 대표 세자르 빌라론도 자리 했다. 조영수 한세에스24문화재단 이사장은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와 처음으로 수교를 맺은 가까운 국가"라며 "한국과 필리핀 수교 70년의 의미를 기념해 이번 전시회를 선보이게 되어 더욱 기쁘다.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전이 필리핀인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선 홈페이지에 국제문화교류전을 한국 필리핀 수교 70주년 기념 행사 중 하나로 소개했다. 한세에스24문화재단은 매년 아시아 국가의 미술을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문화교류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베트남을 시작으로 2016년 인도네시아, 2017년 태국, 2018년 미얀마 미술전을 개최했다. 재단은 아시아 국가와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설립된 뒤 대학생 해외봉사단, 외국인 장학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문학번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Exhibition

한세에스24문화재단이 9월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필리핀 미술, 그 다양성과 역동성' 전시를 열었다. 이번 미술전은 필리핀 현대미술을 주제로 한 국내 최대 규모 전시로 1000여 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이번 미술전에는 필리핀을 대표하는 작가 11명의 회화, 미디어 아트, 설치작품 40여점이 전시됐다. 이들의 작품은 풍경(landscape), 유전(heredity), 풍자(satire), 욕망(desire), 치유(healing) 다섯가지 주제로 나누어 소개됐다. 참여 작가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며 신발이나 책 등을 낚은 옷과 천, 실 등으로 감싸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드는 제드 메리노(Ged Merino), 필리핀의 신화와 설화를 도상학적으로 해석해 회화로 표현하는 호안 프랭크 사바도(Hoan Frank Sabado), 팝적이거나 만화적인 풍자로 이민과 가족 해체, 폭력과 전쟁을 다루는 알빈 그레고리오(Alvin Gregorio)를 비롯해 진 카반기스(Zean Cabangis), 루 메디나(Lui Medina), 키티 카부로(Kitty Kaburo), 노베르토 롤단(Noberto Roldan), 잉글랜드 히달고(England Hidalgo), 빅토르 발라논(Victor Balanon), 페트리샤 페레스 유스타키오(Patricia Perez Eustaquio), 차티 코로넬(Chatí Coronel) 등이 있다.



Soul



Food

여의도 즉석 떡볶이계의 오아시스, 씨니 즉석떡볶이

세계 소울푸드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주저없이 한 가지 음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떡볶이! 분식집 떡볶이, 국물떡볶이, 즉석떡볶이, 궁중떡볶이 등등 떡볶이라면 종류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제가 여의도 입성 3개월만에 발견한 떡볶이 맛집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의도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씨니 즉석떡볶이'입니다.

(에스24 마케팅 본부 마케팅팀 최지원 인턴사원)



정우빌딩 지하로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몸을 꺾으면 바로 씨니 즉석떡볶이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엽서체' 폰트의 간판에서부터 벌써 맛집의 포스가 느껴지시죠? 점심 시간이 되자마자 부지런히 가지 않으면 복적거리는 대기줄 서기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쉽게도 이곳은 예약을 받지 않아 자리 경쟁이 더욱 치열하니 씨니 즉석떡볶이가 먹고 싶은 날에는 조금 더 서둘러 보세요.

씨니 즉석떡볶이의 메뉴판은 어느 맛집처럼 심플합니다. 떡볶이는 인원 수에 맞게 주문해야 하니 추가 사리와 사이트 메뉴만 고르면 됩니다. 라면과 쫄면, 떡, 오뎅은 충분히 들어있고 계란은 인원수에 맞게 나오니 더 드시고 싶은 재료들만 추가하세요. 많은 즉석 떡볶이 가게에서 '2인 1계란' 체제로 분란을 유도하고 있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1인 1계란' 원칙을 아주 오래 고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메뉴로는 코울슬로와 버터갈릭 감자튀김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게 없어요. 이곳의 단골인 과장님께서도 퇴근 후 코울슬로와 소주 한 잔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먹tip을 알려주셨어요. 조만간 저녁을 먹으러 들려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버터갈릭 감자튀김과 떡볶이의 궁합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씨니 즉석떡볶이는 달지 않고 담백합니다. 그리고 떡 맛있게 매워요! 갇힘이 잔뜩 올라간 떡분에 떡볶이 국물의 툇맛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떡볶이 떡후의 두 파별인 '떡파'와 '오뎅파'가 싸우지 않고 사이 좋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두 가지 재료가 균형 잡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쫄면과 라면부터 시작해서 떡볶이와 오뎅을 알차게 먹고 너무 매울 때에는 코울슬로나 감자튀김을 집어 드셔보세요. 벌써 입에 침이 가득 고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던 냄비가 차츰차츰 비고 빨간 국물만 자박하게 남았다면, 한국인의 디저트인 볶음밥을 먹을 때입니다. 날치알 추가는 이미 떡볶이 학계의 정설이죠. 스트레스가 극심한 날에는 모짜렐라 치즈를 앙젯 올려서 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바닥에 살짝 누른 볶음밥을 숟가락으로 살살 긁어내서 냄비를 싹싹 비워내서 그릇에 덜고, 먹지 않고 아껴둔 계란에 떡볶이 국물 한 숟갈을 거침없이 비벼주세요. 한 번도 안 먹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씨니 즉석떡볶이 풀코스! 궁금하다면 내일 점심 메뉴로는 어떠신가요~?



위치: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지하 1층)
전화번호:
02-783-6632
영업시간:
AM 11:00 ~ PM 8:00
(브레이크 타임 없음)

간단하고 맛있는 우리 아이 간식 만들기 표고버섯 탕수육

우리 몸에 정말 좋지만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버섯. 조리법만 달라해도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버섯이라는 걸 감쪽같이 속여 먹일 수 있는 방법, 표고버섯 탕수육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재료 준비]

튀김 재료 :

표고버섯 5송이, 전분 3~4스푼

소스 재료 :

양파 1/2개, 파프리카 각각 1/2개(다른 색깔로 준비하면 좋아요), 당근 1/4개, 각종 채소, 물 200ml, 간장 2큰술, 식초 2큰술, 설탕 4큰술, 전분물

recipe

[조리 방법]

1. 표고버섯을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고 물기를 털어낸 후 밑동을 잘라내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줍니다. (잘라낸 밑동은 버리지 말고 국물을 낼 때 쓰면 좋아요)
2. 나머지 채소들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3. 위생 봉지에 자른 버섯을 넣고 전분 3스푼을 뿌려 흔들어 섞어줍니다. 튀김가루나 전분을 사용해서 튀김옷을 입혀도 상관없지만, 전분 가루만 간단하게 묻혀 튀기면 튀김의 느낌뿐만 아니라 버섯의 식감을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4. 튀김을 옮길 그릇에 키친타월을 깔아 준비해 주세요. 오목한 팬에 기름을 부어 기름을 달군 후, 온도가 오르면 버섯을 넣어 1차로 1분 정도 튀겨 줍니다.
5. 2차로 30초 더 튀겨줍니다. (두 번 튀기면 더 바삭해져요)
6. 다음은 소스를 만듭니다. 전분물은 전분과 물의 비율이 1:2가 되도록 해주세요. 전분 1큰술, 물 2큰술을 잘 섞어줍니다.
7. 오목한 팬에 기름을 살짝 두르고 채소를 볶아줍니다. 양파가 살짝 투명해질 때쯤 전분물을 제외한 재료들을 모두 넣어 주세요. (물 100ml 기준 간장:식초:설탕 비율은 1:1:2입니다. 단맛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설탕 양을 줄여 주시고, 새콤한 맛을 좋아하시면 식초를 좀 더 넣으면 됩니다)
8. 물이 끓어오를 때 전분물을 조금씩 넣어 농도를 조절해 주세요. 원하는 농도로 걸쭉해지면 완성!



66

동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

‘원통 안의 소녀’, ‘천천히 쉬어가세요’, ‘(에스리커버)마음사전’

99



기울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책 선물 한 권은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동료에게 선물하고 싶은 책’이라는 주제로 세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01 원통 안의 소녀

김초엽 저 / 근하 그림 | 창비



불현듯(오은)이 추천하는 책

‘소설의 첫 만남’ 시리즈의 열다섯 번째 책인데요. 두께를 보면 아시겠지만 경장편보다도 짧은, 중편에 가까운 소설이에요. 그리고 역시나, 김초엽 작가님의 놀라운 상상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소설입니다. 표지를 보세요. 진짜 원통 안에 소녀가 있어요. 소설은 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미래는 지금처럼 화석 연료를 많이 사용한 나머지 대기가 많이 오염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공기를 정화하고 오존층 파괴를 막는 ‘에어로이드’를 발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공 ‘자유’는 에어로이드 면역 이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남들은 에어로이드 덕분에 편하게 거리를 다니는데 자유는 원통 안에서 생활하는 원통함(웃음) 갖고 지내죠. 유일하게 원통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은 비 오는 날이에요.

사실 자유는 원통 안에서 지내기 전에 방독면을 쓰고 다녔어요. 그런 자유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쳐다보곤 했죠. 그러다 한 방송국에서 자유의 생활을 다크로 만들고 싶다면서 방송에 출연하는 대신 원통을 개발해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엄청 비싼 원통을 얻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자유는 “동정이 싫다면서 결국은 동정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외출을 하고 돌아온 자유가 원통을 고장내는데요. 이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요. 목소리가 자주 자유에게 말을 가는 거죠. 서서히 자유는 그 목소리와 친해지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이 목소리를 가진 존재는 누군가의 복제인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유가 그를 구출해주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고, 실제로 구출하려고 애쓰는 것이 소설 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생각해 보니 자유가 목소리의 주인공을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둘의 우정이 오직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책은 두 가지 지점에서 의미미한데요. 하나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 미래사회에도 여전히 소외 받는 존재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연대, 보이지 않는 우정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예요. 책의 결말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02 천천히 쉬어가세요

톤 막 저 / 이병률 역 | 북레시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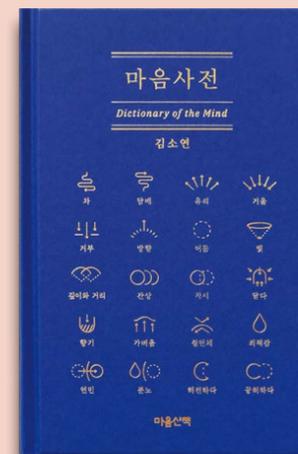
캘리가 추천하는 책

홍콩 출신의 작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 톤 막이 그리고 쓴 그림에세이입니다.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마음 챙김 명상이 있는데요. 명상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정말 좋는데 이 책은 명상하는 기본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라 동료에게 일상의 순간에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선물하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책에 실린 명상법이에요. 한 번 따라해보세요. 조용히 집중하며 마음의 소리를 들어봐요. 먼저 다리를 포개어 앉는 게 중요한데,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된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몸의 중심을 찾으시면 평온함을 느낄 수 있어요. 천천히 눈을 감고 평온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몸의 감각을 깨워주세요. 바닥에 닿아 있는 몸을 온전히 느껴봅니다. 숨을 내쉬고 들이마실 때마다 배가 부풀어올랐다가 다시 꺼지는 것에 집중하세요. 깊이 호흡해주세요.

깊이 호흡하는 것, 정말 좋잖아요. 긴장의 순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 일렁이던 파도가 찾아드는 것처럼 마음이 잔잔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성우 분들이 녹음할 때 크게 호흡하라는 말씀하잖아요. 호흡을 정돈하면 진짜로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 워낙 스트레스로 힘든 분도 많고, 고민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3 (에스리커버) 마음사전

김소연 저 | 마음산책



프랑스소와업이 추천하는 책

이 책을 실물로 보고, 진짜 이 책 디자인은 2019년 대한민국에서 만든 책 베스트10 안에 들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베스트5 안에 들 수 있다, 베스트3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리커버 판은 중쇄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 책은 중쇄를 했다고 해요. 복디자인이 엄청난데요. 디자이너가 누구일까요? 힌트는 <김하나의 측면돌파>에 나왔던 디자이너입니다. 바로 이재민 실장님이 디자인을 하셨어요. 양장인데 가볍고, 특별한 책이에요. 심지어 기름끈도 색을 맞춰서 제작했잖아요. 이것도 엄청 센스가 있고요. 출판사 분들은 다 한 번 사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글을 당연히 다시 읽어봤어요. 이번 에스리커버에는 김소연 시인님의 특별판 서문이 따로 실렸어요. 일부를 잠깐 읽어볼게요.

무심하려고 무척이나 애를 쓰지만 『마음사전』을 읽었다는 사람을 만나면 붉어지는 내 얼굴을 수습하려고 더욱 애를 쓴 겁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표현한 결과가 부끄러움이 될 거라는 걸 그때는 거의 예측하지 못했다. 예측을 했더라면 아마도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것이다. 예측을 했더라면 시도할 엄두조차 내지 않았을 것들로 내 인생은 거의 채워져 있다는 걸 이제는 잘 알고 있다.

책이 나온지 10년이 지났는데 글의 생명력이 대단했어요. 10년의 격차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700가지가 넘는 마음에 관한 낱말을 모아 수첩에 적어가며 '마음을 나타내는 말들이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쓴 게 『마음사전』 인데요. 이 책은 정말 누가 선물 받아도 좋아할 책, 더구나 동료에게 선물 받으면 정말 좋을 책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에스리커버는 겉표지만 달라진 것도 아니고, 내지 디자인도 다 바꾼 책이거든요. 예스24에서만 판매하고 있어서 실물을 미리 보시지 못하겠지만 구매해서 받아보시면 '생각보다 별로'라거나 '실망이야'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추천해요.



쌀쌀한 날씨, 따뜻한 공간에서 머리도 말랑말랑해지는 시간

문화콘텐츠를 소비하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가을, 겨울의 쌀쌀한 날씨에 훈훈함을 채워줄 다양한 문화 정보를 소개합니다.



문학동네서인성 852 아문세 시 일 지람 어기가 맨 앞

김도훈 MD의 추천 도서
지금 여기가 맨 앞 | 이문재
 "가만히 눈을 감기만 해도 기도하는 것이다."
 이따금씩 펼쳐보고 두 손 모으게 하는, 참 좋은 시집입니다.

김태희 MD의 추천 도서
다름 아닌 사랑과 자유 | 김하나 등저
 동물권행동 카라의 '일대일결연' 후원자가 되어 힘을 모은 9명의 작가들이 동물과 함께 살지 않아도 함께할 수 있는 경험이 만든 작은 기록을 이야기합니다.

김유리 MD의 추천 도서
현대 미술의 이단자들 | 마틴 게이퍼드
 가을에 미술관 가고 싶은 마음을 달래는 책. 20세기 후반 런던 미술계는 물론, 현대 회화까지 아우르는 수작입니다.

김태희 MD의 추천도서
빈 | 박종호
 빈의 문화와 역사에 관해 수많은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박종호의 '빈'. 빈이 품고 있는 다양한 면모를 모두 담고 있는 풍월당 문화 예술 여행입니다.

박형욱 MD의 추천도서
한미란의 니트 교실 : 거꾸로 뜨는 톱다운 니팅
한미란
 날이 추워지면 더 생각나는 손뜨개! 이 책에서는 목선부터 아래로 거꾸로 뜨는 TOP-DOWN 니팅을 소개합니다.

박숙경 MD의 추천도서
기타 동등의 연애 | 김표교
 수없이 많은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찾아낸, 보통 사람의 특별한 연애 이야기! 잠자고 있는 연애 세포를 두드립니다.

공연

콘서트 〈2019 나훈아 청춘어게인〉 2019.10~2019.12 전국투어	뮤지컬 〈스위트드〉 2019.10.02~2020.01.27 사롯데시어터	콘서트 〈송가인 리사이틀 'AGAIN'〉 2019.11.03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월드투어〉 2019.12.13~2020.02.09 부산 드림시어터	뮤지컬 〈영웅본색〉 2019.12.17~2020.03.22 한전아트센터

영화

〈82년생 김지영〉 2019.10.23 개봉	〈신의 한 수: 귀수편〉 2019.11.07 개봉	〈블랙머니〉 2019.11.13 개봉	〈겨울왕국 2〉 2019.11 개봉 예정	〈캣츠〉 2019.12.18 개봉

채널에스 추천 영화

평온이든 행복이든 너를 감싸게 하라 영화 〈뷰티풀 보이〉

글 정은숙(마음산책 대표)
출처 채널에스칼럼 (<http://ch.yes24.com/Article/View/40077>)

이 부자의 이야기는 실화다. 영화 원작은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셰프의 동명 책 '뷰티풀 보이'와 아들 닉 셰프의 회고록. 책은 출간되자마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기록했으며 데이비드는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들었다. 데이비드는 〈오프라 윈프리쇼〉에 출연해서 하루에 약물중독 사망자가 150명에 이르는 미국의 현실을 증언하고 자신의 고뇌를 밝힌다. 공허를 매우기 위해 시작한 약물이 그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고백하는 일은 전 세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기적으로 그의 아들 닉은 8년 동안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 하지만 재발의 위기가 언제 찾아올지는 모른다.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는 유지선 존 레닌 인터뷰이기도 했다. 존 레닌이 아들 선을 위해 부른 노래 '뷰티풀 보이'는 금세 데이비드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결국 책 제목으로도 썼다. "아름답고 아름다운 아들이"라는 후렴구는 다정하고 명민한 아들이 약물에 취해 과몰이 되어가도 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유효하다.

배우 티모시 샬라메는 아픈 청춘을 연기하고자 7킬로그램을 감량했다. 영화 속에서 그는 가는 나뭇가지처럼 떨면서 그는 세상을 마주한다. 독서광 청년 닉, 자책하는 닉, 사과하는 부드러운 닉, 세상을 원망하는 황폐한 닉은 티모시 샬라메로 구현되어 관객에게 그 떨림을 전한다. 영화의 플롯이 비교적 단순하고 연출이 다소 성가지만 몰입할 수 있는 건 역시 배우 덕분이다.

beautiful boy



어려워진 수능 국어, 중학교부터 '빠른시작'이 답! 동아출판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 신간 출시!

최근 몇 년간 수능 국어의 지문이 길어지고 문제의 정보량이 많아지는 등 국어 영역의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는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국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학생 때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동아출판에서는 <비문학 독해 1, 2, 3>에 이어, <문학 독해 1, 2, 3>, <어휘 1, 2, 3>, <문법>, <서술형 쓰기>를 출시하며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비문학 독해>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지문을 읽고 분석하는 훈련을 하며 독해력을 기르고, <문학 독해>를 통해 필수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문학 독해 방법을 미리 익혀 두면 수능에서 낯선 작품을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문법>을 통해 중학교 문법의 기초를 쌓아두면 수능까지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어휘>는 전 영역의 독해력 및 이해력 향상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서술형 쓰기>는 최근 내신에서 비중이 높아진 서술형 문항 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간 출시와 함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인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예상됩니다.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
<문학 독해 1, 2, 3>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
<비문학 독해 1, 2, 3>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
<어휘 1, 2, 3>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
<서술형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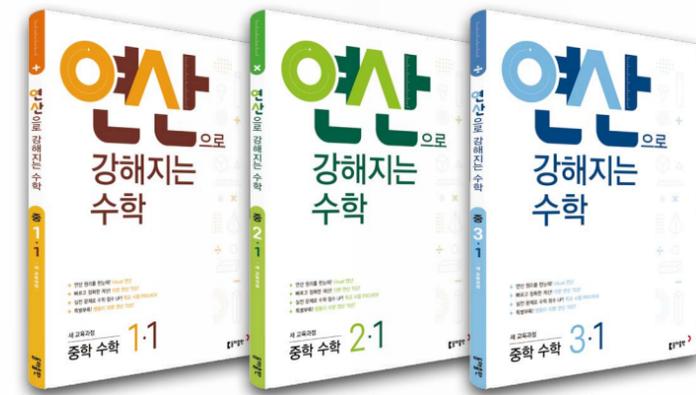
중학 국어 빠작 시리즈
<문법>

새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 수학 전 학년 교재 최초 출간! 동아출판 <연산으로 강해지는 수학>과 <절대등급 중학 수학>

동아출판이 중학교 1~3학년 대상 새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 수학 교재를 업계 최초로 지난 10월 출간했습니다. <연산으로 강해지는 수학>과 <절대등급 중학 수학>을 구매한 학생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교육과정이 반영된 중학교 수학 학습이 가능합니다. 수학 점수를 단기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실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즉, 실수 없는 문제풀이를 위해서 연산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아출판은 기초 계산력 교재인 <연산으로 강해지는 수학>을 출간했습니다.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식화된 구성이 특징입니다. 부록으로 제공하는 '쌍둥이 10분 테스트'는 시간 내에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절대등급 중학 수학>은 '최상위의 절대 기준'이란 슬로건이 어울리는 중학 수학 고난도 문제집입니다. 전국 우수 학군 선생님들이 집필에 참여하여 내신 만점 대비가 가능합니다.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는 필수 문제부터 변별력을 결정하는 최고난도 문제까지! 신경향 기출 문제와 모든 교과서의 심화 문항을 엄선하여 최고 실력을 완성하도록 합니다. 3단계 레벨로 구성되어 내신 만점을 꿈꾸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연산으로 강해지는 수학>과 <절대등급 중학 수학>은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이 학기마다 사용하는 교재이며 예스24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중학 수학 신규 브랜드를 론칭함에 따라 동아출판은 중학 수학 라인업을 완성했습니다.



<절대등급 중학 수학>



<연산으로 강해지는 수학>

이것만 기억하면 PPT 자신감 뽐뽐! 애매한 PPT에 생기를 불어넣는 5가지 꿀팁

일반적으로 우리가 PPT에 대해 갖는 두려움은 **문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모자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전달력을 높여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기인한다. 여기에 말주변까지 없는 사람이라면, PPT를 만들어 놓고도 몇날 며칠 밤을 세워 내용만 외울 뿐, 제작이나 발표면 모두에서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자, 지금부터 PPT에 대한 복잡미묘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누구나 광고대행사 직원처럼 디자인하고 발표할 수 있는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 PERSONA : 스토리 텔링 말이 쉽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Persona란? 원래 뜻은 고대 배우들이 사용했던 가면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배우가 맡은 인격을 지칭한다. 현대에 와서는 이 의미가 확장되어 마케팅 영역에도 쓰이는데, 특정 브랜드가 지향하는 타겟 고객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는 것이다. PPT에 페르소나를 설정하는 것은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페르소나를 만드는 것은 발표를 듣는 청중이 지루하지 않게,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흥미로운 도입부를 만들어 줄 것이다. 아래 예시를 참고해 보자.

예시

미술품 경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PPT의 페르소나

이름 : 가나다
나이 : 50세
거주지 : 성동구 주상복합 아파트
취미 : 홍차 블렌딩
최근 관심사 : 문화생활 즐기, 재테크, 사회공헌 활동
최근 여행지 : 뉴욕, 여행목적은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감상을 위해서
패션 스타일링 : 명품 브랜드 옷을 주로 입지만,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에도 관심이 많음

이처럼 주제에 맞는 페르소나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청중에게 발표 내용이 더욱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스토리 텔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는지 막막하다면 꼭 페르소나를 도입부에 보여주도록 하자.

서체 추천

유, 무료 서체를 한 번에 소개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당 작업환경에서 아래 서체명을 검색해보고 보이지 않으면, 추천 목록 중에서 골라서 대체할 수있도록 하였다.

영문 서체

고딕계열 : Helvetica, Futura, Univers, Franklin Gothic, Gill Sans
명조계열 : Times new roman, Bodoni, Garamond

한글 서체

고딕계열 : 윤고딕, 산돌고딕, 네이버 나눔고딕, 네이버 나눔스퀘어, 맑은 고딕
명조계열 : 윤명조, 산돌명조, 네이버 나눔명조

서체 참고 사이트 : www.dafont.com

영문 서체 무료 배포 사이트로, 포인트를 줘야하는 부분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 FONT : 내가 만든 PPT가 촌스러운 이유는 서체 때문?!

PPT를 만들면서 "뭔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싶을 때 제일 먼저 손봐야 할 것이 서체이다. 서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들기가 있는 명조체 계열을 뜻하는 Serif(세리프)와 끝이 딱 떨어지는 고딕 계열인 San-Serif(산-세리프) 두 가지가 있다. 아래 조합을 염두에 두고 PPT를 만든다면, 서체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일깨운 스티브 잡스가 박수를 쳐줄지도 모를 노릇이다.

제목 : 고딕계열 (Bold) + **내용 :** 고딕계열 (Light)

제목 : 고딕계열 (Bold) + **내용 :** 명조계열 (Light)



#. LAYOUT :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 그걸 PPT로 만들어낸 당신.

Layout은 화면 구성을 뜻하며, 쉽게 말해 문서상에서 글자와 이미지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레이아웃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PPT를 만들 경우 전체적으로 산만함을 청중에게 보여줄 수 있으니 제작 전에 사용할 메인 레이아웃을 정해두는 게 좋다. 그러나, 레이아웃은 편집디자인 영역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보기 좋게" PPT를 구성하는 것은 상당히 고난도 작업이다. 그래서 준비한 꿀팁! 발표 주제에 맞는 레이아웃을 구할 수 있으며, 완성후에는 PDF로 저장도 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에서 레이아웃을 공부해보는 것이다.

참고 사이트 : www.cakeresume.com

사실 위의 사이트는 온라인 포트폴리오 플랫폼이다. 이 사이트를 강추하는 이유는 이미지와 글자의 적절한 배치를 요하는 PPT작업에 딱 알맞는 소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 개발자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트로, 한글 제공은 물론 일부 유료 템플릿이 존재하지만, 대부분의 템플릿은 가입만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이미지와 글자 배치를 헤매고 있다면 참고 해보도록 하자.



#. COLOR : 색상, 공식처럼 그냥 누가 정해줬으면...

색상 조합은 **Main Color + Sub Color + Point Color** 로 구분하여 3가지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Main Color는 배경과 같이 차지하는 면적이 가장 넓은 곳, 또는 가장 먼저 시선이 가는 곳에 사용한다. Sub Color는 Main Color를 보조하며 "조화"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Point Color는 Main Color의 보색을 사용하여 눈에 띄게 일부만 사용하도록 한다. 만약, 색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막연함이 가지지 않을 경우 옆의 내용을 적용해보자.

첫째 : 색상은 하나만 선택하고, 투명도를 달리 할 것

투명도를 100% > 80% > 60% 이런식으로 단계별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단일 색상으로 다채로움과 통일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다. 주로 흰 바탕에 1가지 색상을 사용할 때 쓰면 완성도 높은 작업물을 만나게 될 수 있다.

둘째 : 기업 CI 컬러를 참고할 것

대부분의 기업 CI역시 3가지 색상 이내로 만들어져 있으며, 디자인 회사를 통해 검증된 색상 조합인 경우가 많다. 구글 검색창에 Brand CI라고 검색하면 다양한 로고가 보이는데, 그 중에서 색상 조합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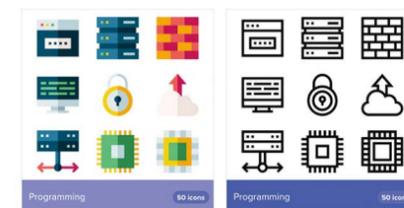
셋째 : 글자 색상을 검정색이 아닌 회색계열로 선택할 것

흔히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검은색(기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장 검은색 역시 개성이 강해서, 주변 색상과 어울리지 않고 뜻밖의 "눈에 띄지만 거슬리는 강조"로 보여질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편안한 느낌의 PPT를 만들고자 한다면, 글자 색상을 검정색보다 조금 옅은 회색을 선택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다.

#. INFOGRAPHIC : 쓸 말은 없고, 화면은 화려하고

사실 인포그래픽 부분이 이 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흰 바탕에 맑은 고딕으로만 디자인하더라도 적절한 인포그래픽만 잘 사용하면 세련된 PPT를 디자인 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은 크게, 표지판 처럼 단일 정보를 기호화하는 것과 도표처럼 수치화하는 것이 있다. 수치화 하는 인포그래픽의 경우 그래프, 표 등이 삽입되기 때문에 그나마 정리가 되는 편이지만, 기호화 된 정보를 "디자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다.

간단한 해결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인포그래픽 소스를 많이 갖고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포그래픽은 유료이거나, PNG 파일이 아니라 배경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없고, 혹은 편집 가능한 파일이 아니기에 색상이나 크기를 바꾸는데도 제한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해줄 보물창고 하나 있는데, 바로 "https://www.flaticon.com" 라는 사이트이다. 여기서는 가입만해도 무료 제공되는 인포그래픽을 누구나 다운 받을 수있다. 파일을 JPG, PNG로 다운받아 바로 PPT에 삽입할 수도 있고, SVG, PSD 파일로 받아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색상 및 형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랑이지, 사랑이 없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 글의 제목은 막 이별한 20대 대학생의 푸념이 아니다. 올해 81세인 우리나라 레전드 기타리스트 신중현 선생의 말이다. 음악 기자를 하다 보면 다양한 뮤지션들을 만나게 된다. 온 몸에 타투를 한 인디밴드 보컬, 미국 버클리 음대 출신 재즈 피아니스트부터 TV에 나오는 유명 아이돌까지. 하지만 기억에 오래 남는 사람은 많지 않다. 신중현은 아마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일 것이다.

신중현 선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최초의 기타리스트이자 수많은 명곡을 만든 1세대 뮤지션이다. 가수 김건모가 불러 잘 알려진 곡 '빛속의 여인', 이선희의 목소리로 더 친숙한 곡 '아름다운 강산'이 모두 신중현 선생의 1960년대 작품이다. 울랄라 세션이 슈퍼스타K에 출연해 부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자꾸만 보고 싶네'라는 가사를 가진 곡 '미인'도 그가 1970년대에 만든 곡이다. 1960~1970년대 음악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만든 노래들치고는 아주 세련된 멜로디와 리듬으로 구성되었다. 신중현 선생이 대한민국 록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유다. 실제로 서태지, 임재범, 김중서가 거쳐간 록밴드 '시나위'의 기타리스트 신대철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매미 소리가 시끄러웠던 지난 7월, 신중현 선생을 용인에 있는 그의 자택에서 만났다. 2009년 세계적인 일렉트로닉 기타 제조사 '펜더'가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 아시아에선 처음으로 기타를 그에게 한정했는데, 세계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그 기타로 연주해 녹음한 앨범을 새로 낸 기념이었다. 곧은 허리 와 어깨를 넘는 긴 머리,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여든이 넘은 노인이라 믿기 어려웠다. 특히 그의 깊은 눈에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맞섰던 반항심도 여전히 서려있는 것 같았다.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죽 듣는데 자꾸만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하는 나이지"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것 아닌가. 궁금해졌다.

나: 여든이 넘으셔서 여쭙보는건데, 삶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 나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남의 집 살기도 하고 근데 뭐 없더라고. 허허.

나: 살아보시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거 같으세요?

신: 사랑이지. 사랑 없으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지. 꼭 남녀간의 사랑만 말하는 건 아니야. 자식에 대한 애착이나 물건에 대한 집착 같은 것도 사랑이지. 나처럼 나이가 들면 이제 그렇게 없어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질 않는거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물어본다는 말투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평한 기분이 들었다.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유명한 기타리스트도 똑같이 늙는다. 늙는다는 것은 신체가 늙어간다는 것만은 아니다. 의욕 또한 늙어가는 것이었다. 그 의욕이 삶에 대한 것이든 일에 대한 것이든 말이다.

신중현 선생의 말과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 회사 선배로부터 들었다. "도무지 의욕이 안 생기는 거 보니 나 이제 늙어버렸나봐." 내년엔 막 마흔이 되는 이 선배는 "회사 다니는 게 너무나 재미가 없다"고 했다. 내가 신입사원일 때 그 누구보다 파이팅 넘치던 선배였다. 일하는 것도, 후배를 훈내는 것도 모두 1등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선배의 얼굴이 갑자기 늙어 보였다. 회사원들은 모두 비슷할 것이다. 어느 순간 회사에 대해, 일에 대해 의욕을 잃는 시점이 온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 업무를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떡해야 이 조로증(早老症: 일찍 늙어버리는 것)을 고칠 수 있을까.

신중현 선생이 인터뷰 마지막 쯤 해답을 알려줬다. "그래도 기타가 있고 음악이 있으니까 나는 정말 행운인거야. 좋아하고 열정을 바칠만한 것이 있었다면 꾸준해야 해. 물론 평생 하려면 지루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때 그만두면 모든게 다 사라져. 그러면 더 폭삭 늙어버리는 거야. 새로운 사랑은 못 찾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랑까지 버릴 필요는 없잖아."

‘달이다’와 ‘다리다’ 올바른 표현은?

경기도 일산의 한 시장을 지나다 골목 안 건강원 앞에 붙은 문구를 보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한약 다려 드립니다"

주인장께서 무슨 뜻으로 써 붙이셨는지 알아보았지만, 전기 다리미로 약재를 열심히 다리는 모습이 떠올라 웃음이 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는 의미가 다르지만 발음 혹은 표기가 비슷해 잘못 쓰이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이다'와 '다리다'입니다. 발음은 같지만 반드시 구분하여 써야 합니다. 건강원 사장님처럼 '물에 약재가 우러나도록 끓인다'는 뜻으로 쓰거나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는 말로 쓰는 단어는 '달이다'입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달인 배즙이 좋다"거나 "온 집안에 간장 달이는 냄새가 진동한다"처럼 사용됩니다. 하지만 '다리다'는 옷이나 천의 주름을 펴거나 줄을 잡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르는 행위를 뜻합니다. 발음도 같고 표기법도 비슷해 헷갈릴 수 있지만 다리미를 떠올리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리미로 옷을 다릴 수는 있어도 달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달이다 :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다리다 : 옷이나 천의 주름을 펴거나 줄을 잡기 위해 다리미로 문지르는 행위